

# 신뢰, 사회의 품격, 그리고 비영리섹터

기빙코리아

2018. 10. 12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jyee@snu.ac.kr](mailto:jyee@snu.ac.kr)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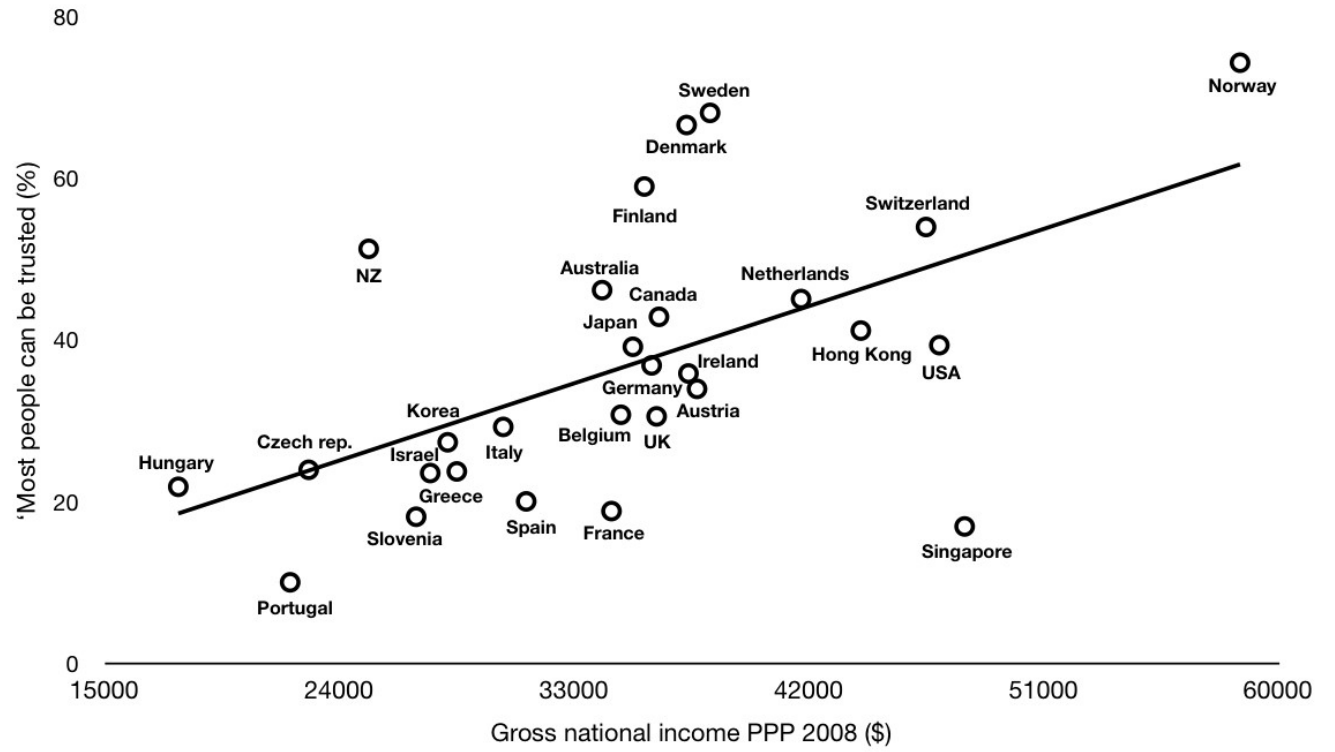
### ✓ 왜 신뢰인가

- 신뢰의 사회적 맥락
- 불신의 제도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 사회의 품격
- 비영리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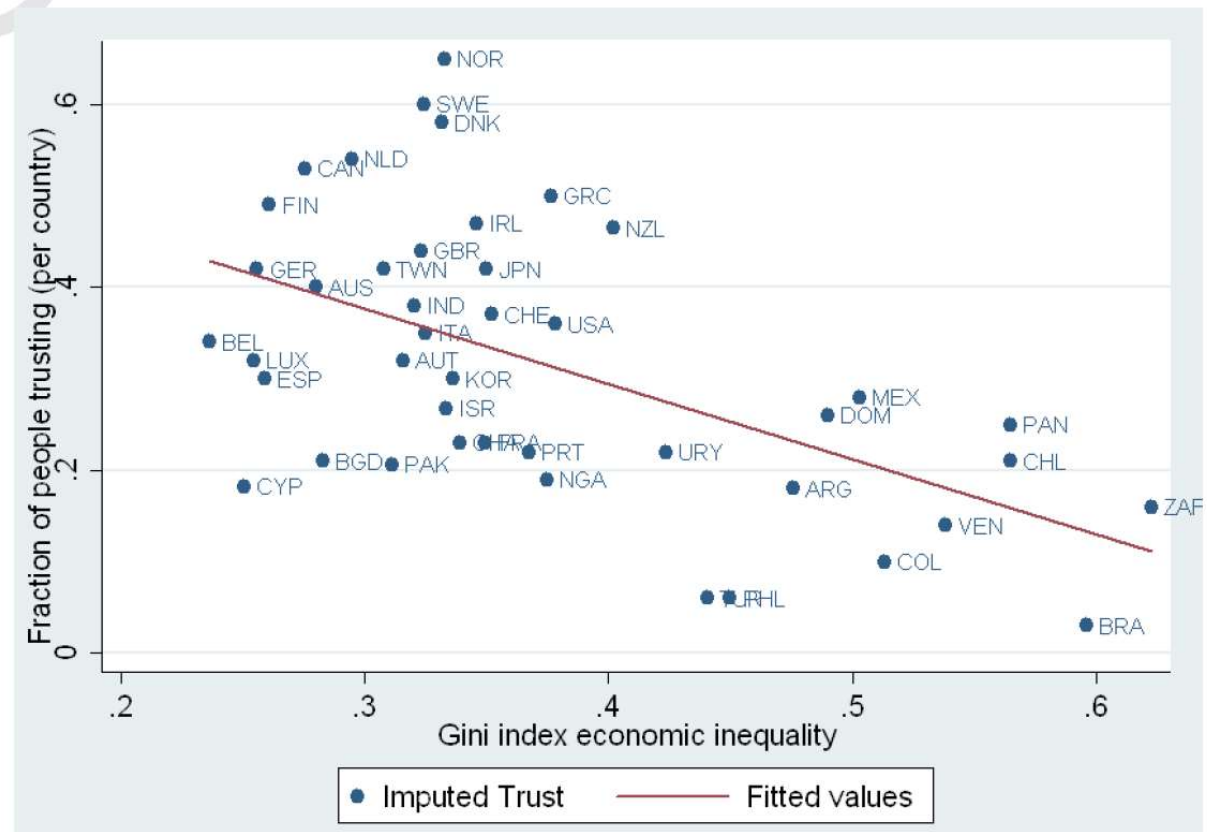
## 왜 신뢰인가?

- 신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사회자본” 개념의 등장과 관련
- 1990년대 경쟁과 효율의 강조로 인한 ‘사회’의 실종
- 신뢰의 효과
  - 높은 경제성장
  - 대규모 기업조직
  -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 사회운동
  - 지방자치
- 한국에서 신뢰 논의의 맥락 – 연고주의적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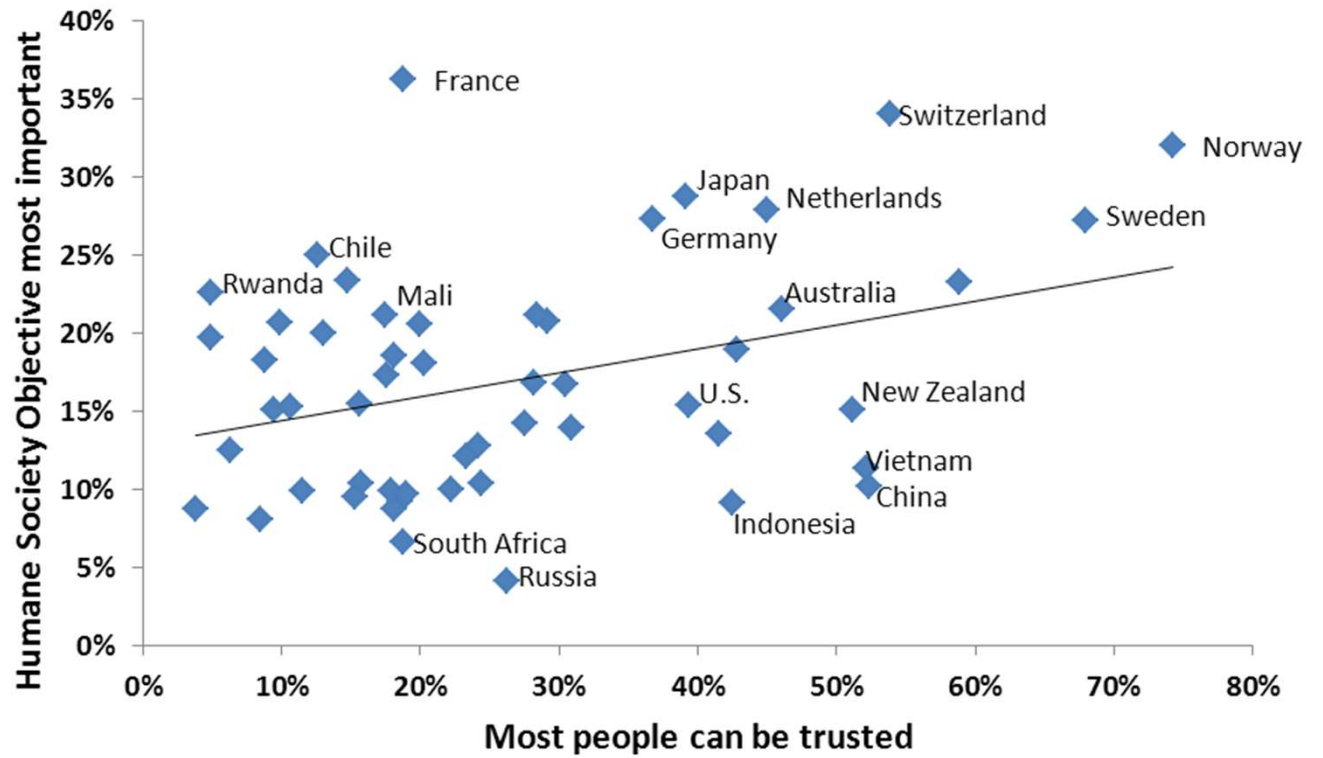
신뢰가 높은  
나라 =  
부유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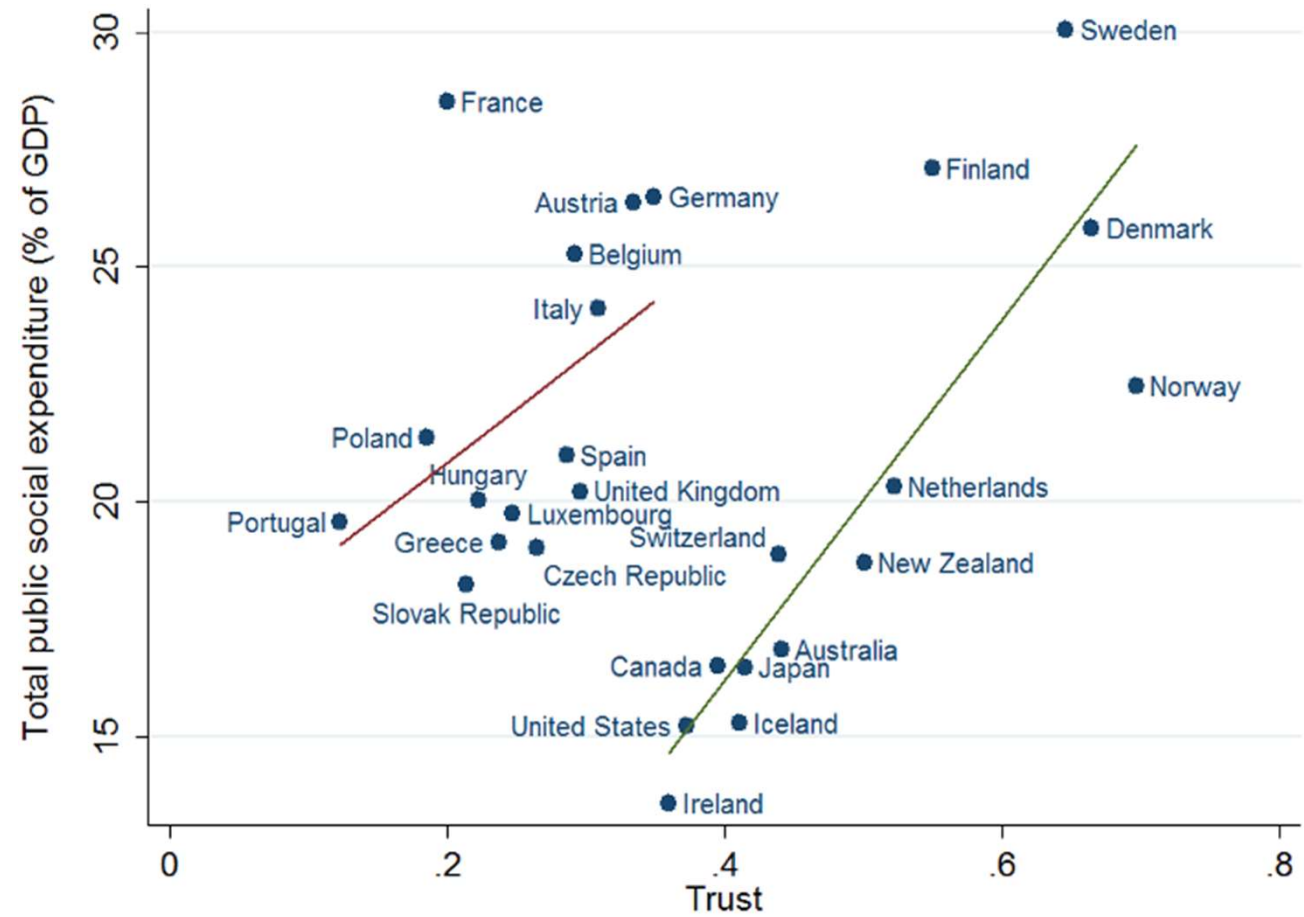
불평등한 사회  
= 저신뢰 사회  
(Uslaner and  
Rohstein, 2005)



신뢰사회 =  
인간적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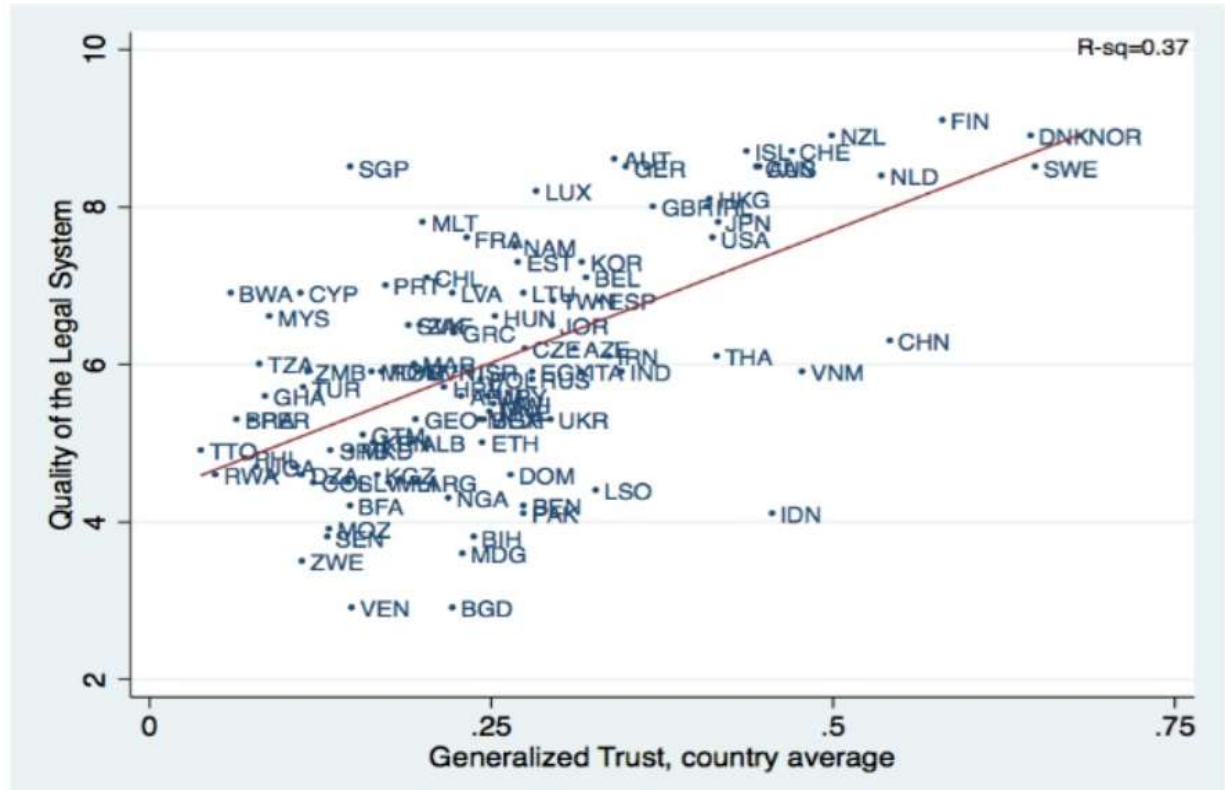


신뢰와  
복지지출  
(the twin-  
peaked 모델,  
Yann Algan, et  
al, 2014)



# 일반신뢰와 법제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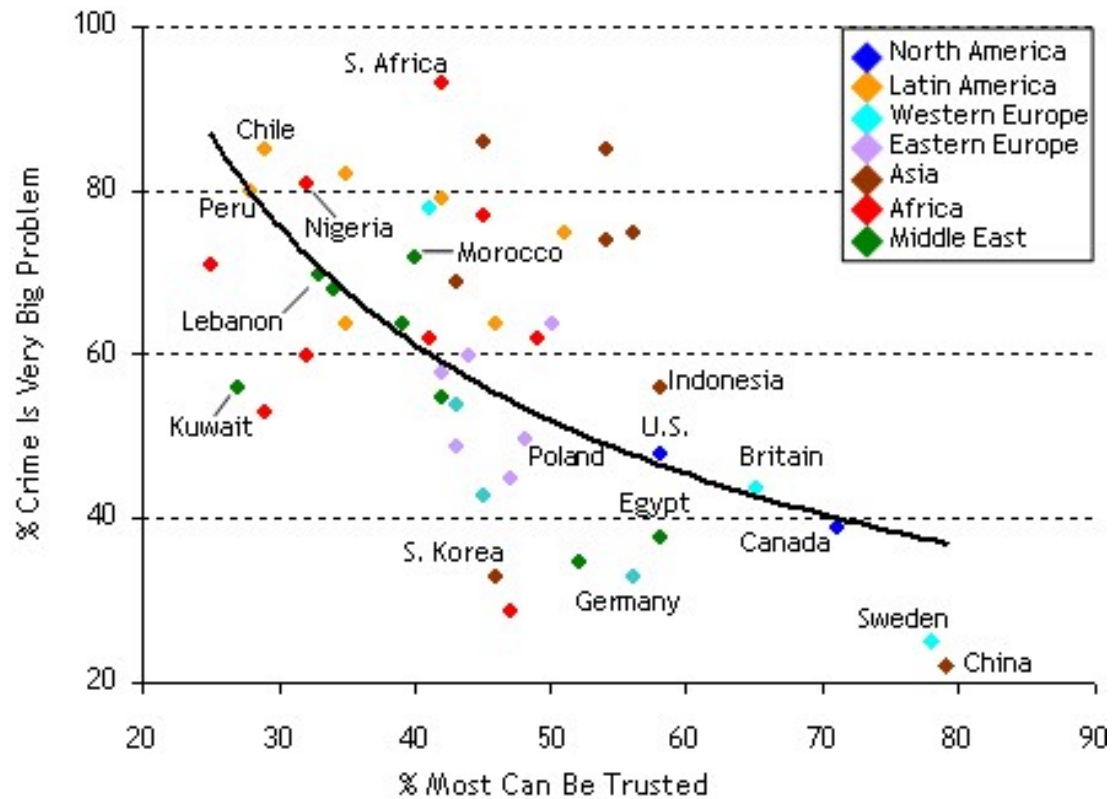
(Yann Alga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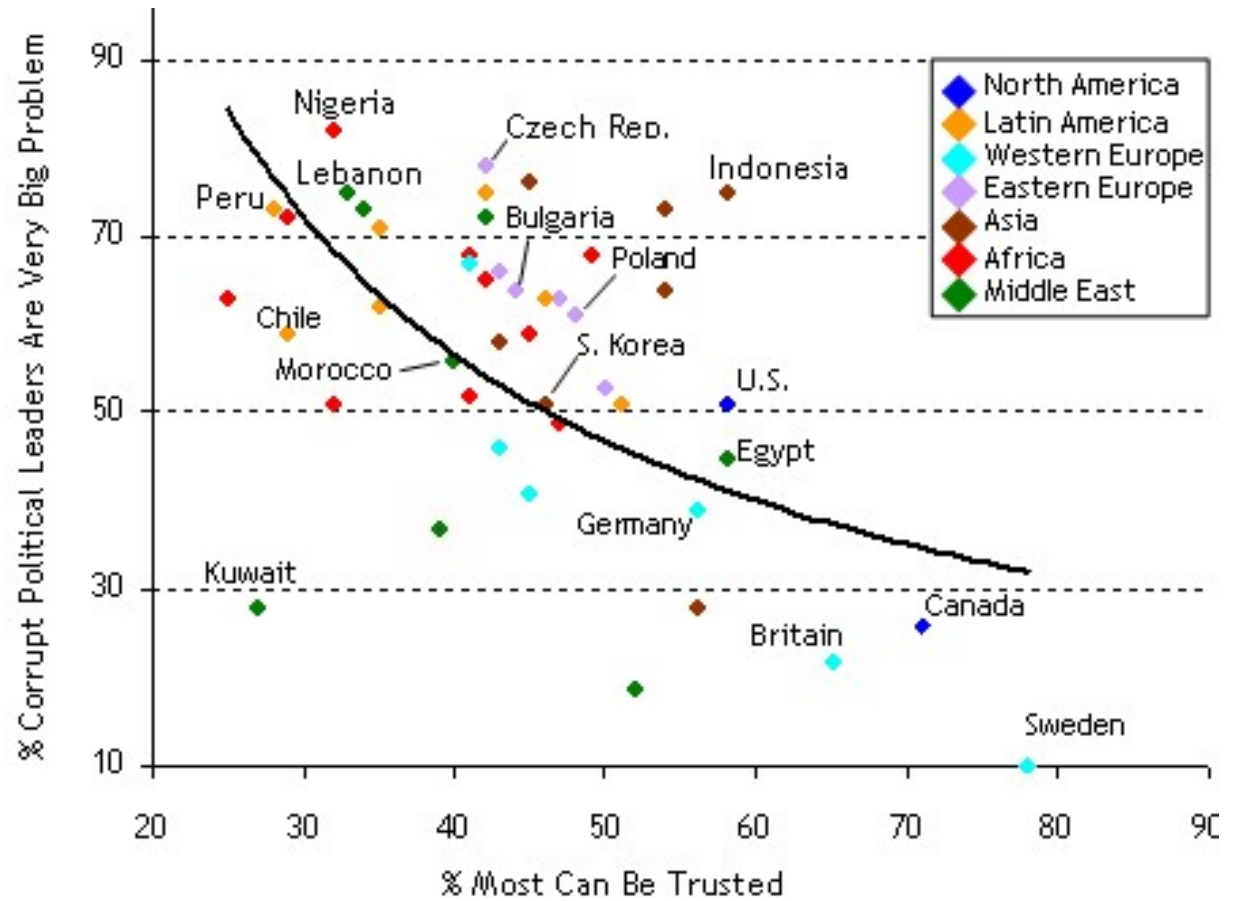


# 일반신뢰와 범죄인식

Trust and Perceptions of Cr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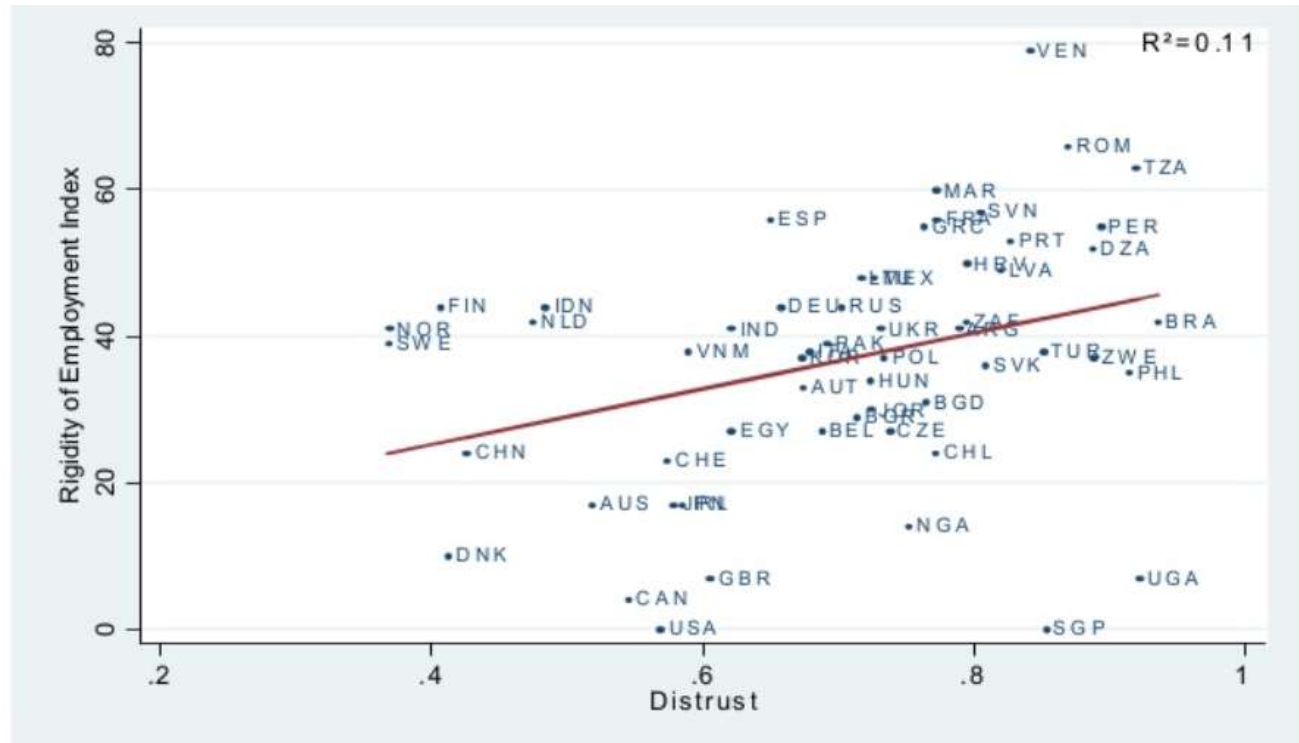


# 일반신뢰와 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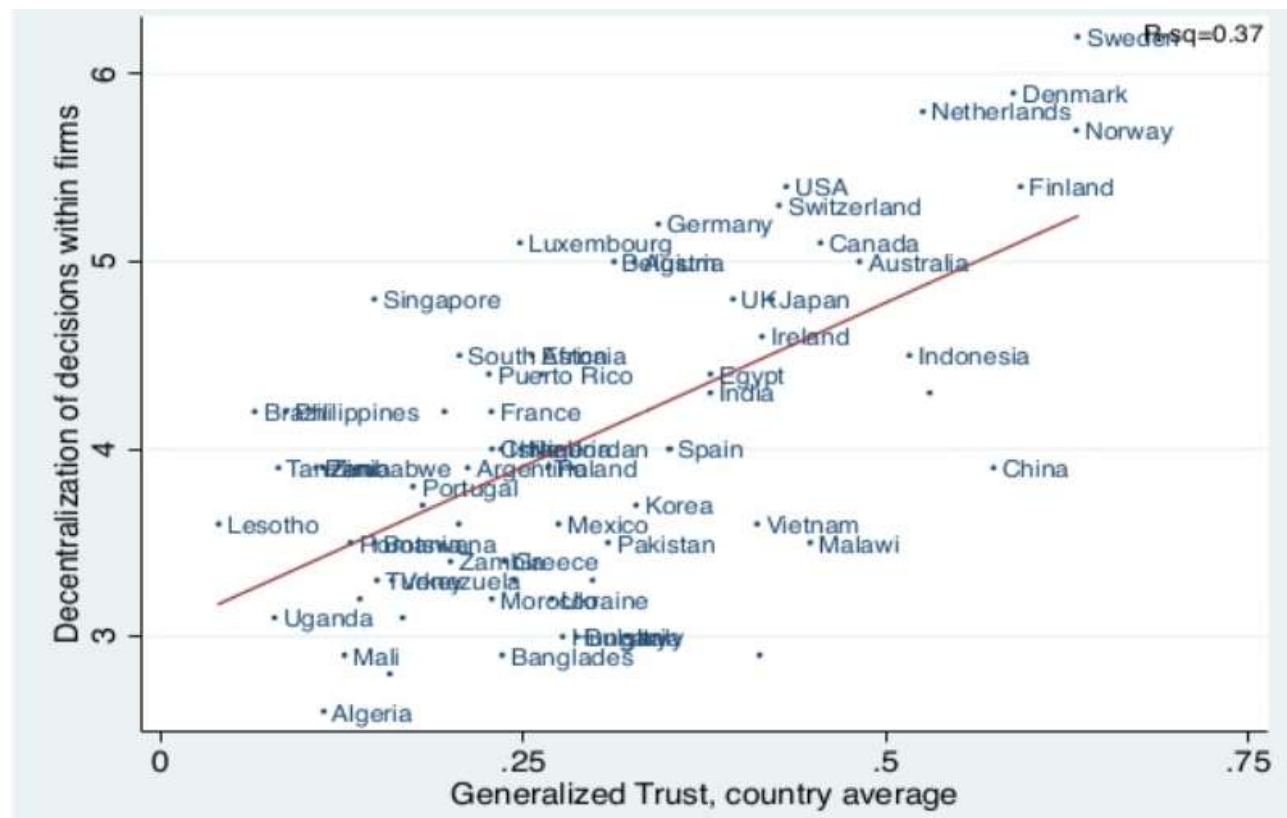
# 불신과 노동시장 규제

(Aghion et al, 2010)



# 일반신뢰와 기업내 의사결정 분권화

(Bloom and Van Reenen, 2013)



## '신뢰' 개념 유의사항

### 개념적 구분

- 배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 문화적 특징,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신뢰할 만한 사람)

###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

- 집단적 수준의 사회자본은 개인수준의 사회자본의 합이 아님
- 관계자본(relational capital)과 사회수준의 자본(societal resource)을 구분해야

### 문화결정론에 대한 경계

- 운명이 아닌 체질이며, 체질에 맞는 처방이 필요 (투명성)
- 연고주의가 가진 맥락적 효과 (높은 체제실패의 가능성)

## 목차

- 왜 신뢰인가
- ✓신뢰의 사회적 맥락
- 불신의 제도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 사회의 품격
- 비영리의 미래

## 신뢰와 사회자본

- 사회자본 개념의 혼란상은 신뢰의 맥락의존성을 보여줌.
- 콜먼 Coleman
  - '폐쇄(closure)'된 사회구조에서 주로 발견되는 의도치 않은 출현적 현상
  - 폐쇄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제재를 가능케 하기 때문
  - 관계구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행위자들이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음.
- 부르디외 Bourdieu
  - 사회자본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과정과 불평등의 측면에 주목
  - 사회자본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발현시키되,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효과로 지속되는 특수한 형태의 불평등구조
- Putnam
  -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좀더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질'
  -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시민의식의 토대

## 콜먼, 부르디외, 퍼트남의 사회자본론 비교

	콜먼	부르디외	퍼트남
자본 발생의 기제	사회적 폐쇄/전략	장기간의 상호 인지	사회적 개방/문화
성격	사적	구조적	공적
이론적 배경	합리적 선택	구조화	제도주의
자본의 특성	관계적	계급적/배제적	제도적
자본의 효과	정보, 통제	차별화/불평등	시민의식, 참여
측정수준	개인 간	중범위 집단수준	거시적



## 신뢰와 사회자본 개념의 혼란

1.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관계적 속성
2. 사회자본은 공공재적 특성.
  - 공공재란 사용하면 할수록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됨
  -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 커짐.
3. 사회자본은 도덕적 자원의 특성.
  - 그것의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일단 형성된 후에는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정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
4. 어떤 개인들 간 관계인지, 그리고 관계가 동질성과 이질성 중 어떤 측면을 강화시키는지에 따라 공동체 수준의 사회자본의 성격이 결정됨.
  - 구성의 동질성이 태도와 가치의 동질성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배타주의나 자기집단중심주의로 흐를 가능성
  - 반면에 공통의 관심이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주는 경우 공동체 수준의 사회자본은 개방성과 상호호환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차원	K형	A형
행위자 성격 (Coleman)	인격주의	개인주의
관계의 불평등성 (Bourdieu)	불평등, 위계적	평등, 민주적
규칙의 투명성 (Putnam)	불투명 & 사적	투명 & 공적

## 신뢰의 사회적 맥락

## 개인주의와 인격주의 (Hofstede)

	개인주의	인격주의
인간에 대한 가정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경제학적 인간관	규범을 내면화한 사회학적 인간관
문화적 차이	독립적 자아와 절대 자유개념	관계론적, 집합주의적 존재
신뢰	계산된 투자	바람직한 덕목
관심대상	내집단과 확대가족	자신, 핵가족
주된 가치	정직	화합
소통	얕은 맥락	깊은 맥락
규칙위반자	죄의식	체면손상
경영의 토대	개인	집단
고용관계	계약	가족과 유사



다음 중 이것과 더 가까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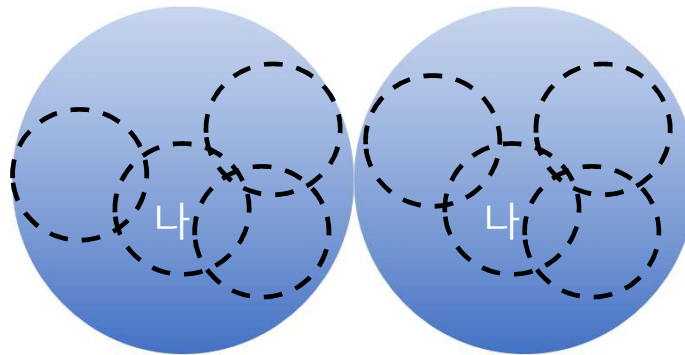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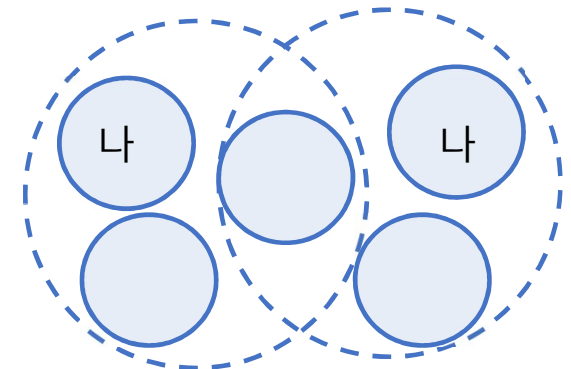


# 개인과 집단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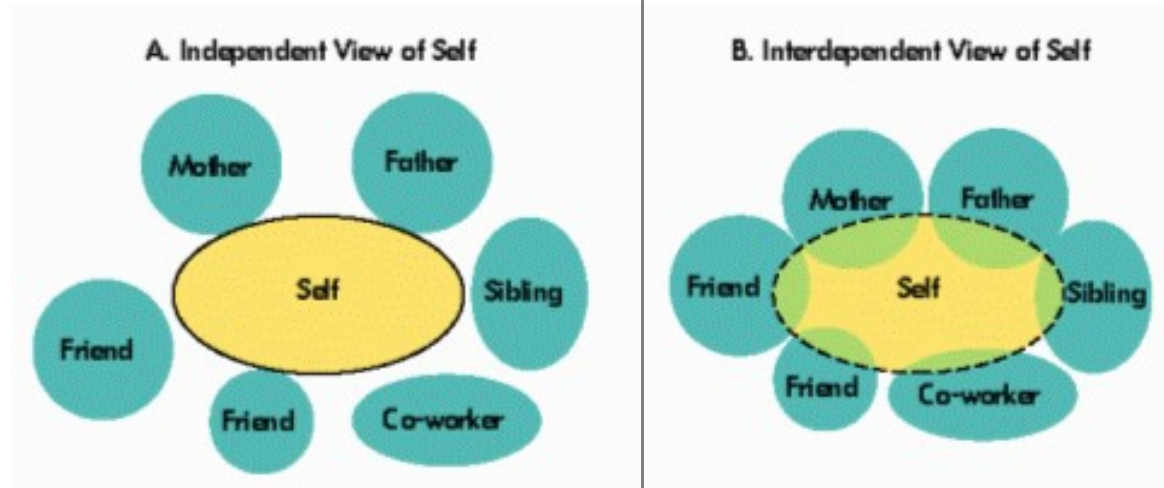
집단주의



개인주의



# 자아 개념의 동서양간 차이



(Markus & Kitayama, *Psychological Review*, 1991)

## 실체론과 분석적 사고



- 기원: 그리스
- 유럽-미국 사회의 전형적인 패턴
- 세계관: 사물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속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 결정요인:
  - 온화한 기후
  - 강한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활동
- - 자연을 쉽게 통제 가능

## 관계론과 총체적 사고



- 기원: 동아시아 철학 (도교, 불교, 애니미즘)
-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



결정요인:

- 빈번하게 변화하는 기후와 사계절
- 경제활동에 강한 사회적 유대가 필요

세계관: 사물은 서로 관련되어 있음.  
한 사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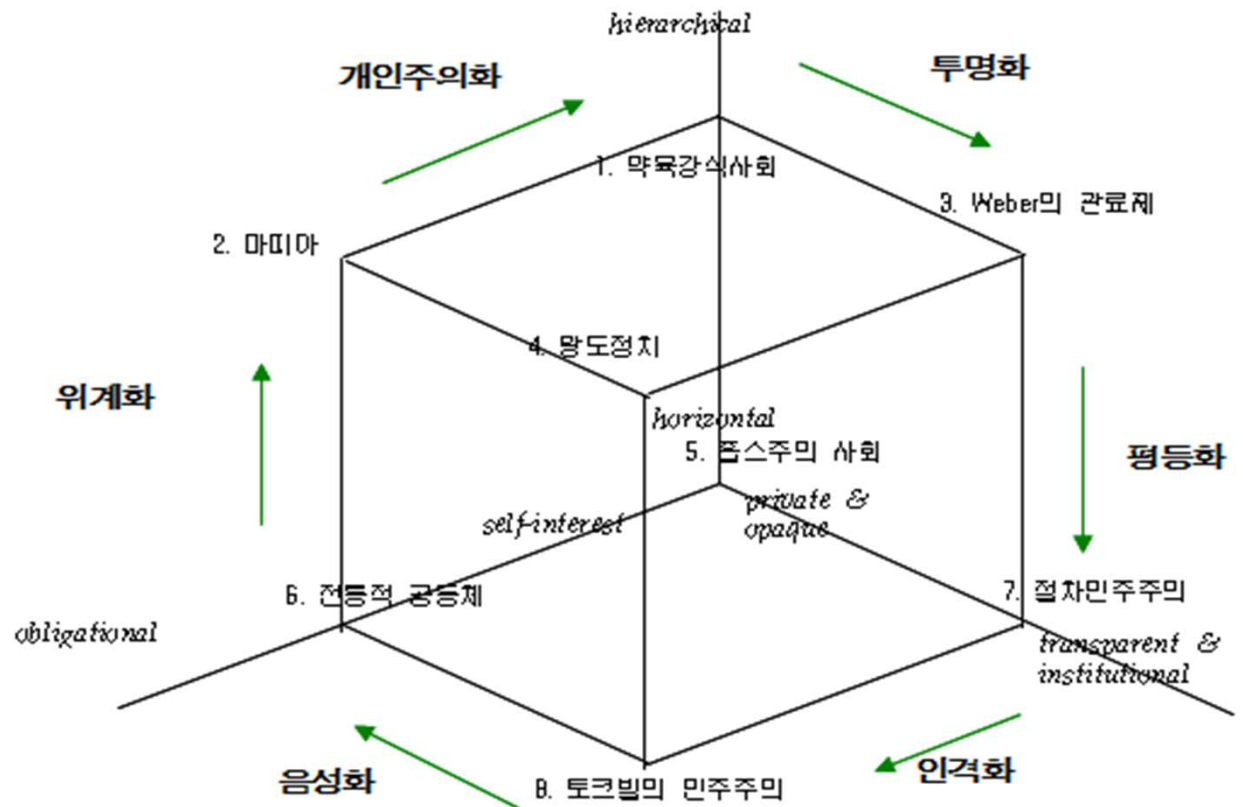
## 권력거리와 불평등 (Hofstede)

	권력거리가 큰 사회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
인간에 대한 가정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동등하지 않음	사람은 모두 동등한 존재
부모-자식관계	자식은 부모에 복종	평등
교사-학생 관계	학생은 선생을 존경	교사는 지식전달의 전문가
신뢰의 효과	보스 중심의 위계적 충성-후견관계	공동체적 유대감의 강화
권위주의적 가치	교육수준과 무관	교육은 권위주의를 약화

## 사회적 규칙의 투명성

-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의 공공성
  - 법률로 명문화된 규칙 이상의 것
  - 개인의 영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규칙
  - 개인간 인격적 신뢰와 무관한 규칙에 대한 신뢰

# 사회체계의 이념형





## 의리(義理): 인격윤리 사회의 도덕적 토대

- 인격윤리(personal ethic)란 '전통시대 공동체 원리였던 상호부조의 원리가 도시공동체에 변형되어 잔존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사회생활 속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규범체제'
- 인격윤리는 의리(義理)로 대표.
- 한국적 맥락에서 신뢰는 의리
  - 의리는 관계 유지가 목적이란 점에서 개인주의사회의 공리(公利)와 대비
  - 정의(情誼)적 관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계약사회의 정의(正義)와도 대비
- 관계론적 인간관 (통체(統體)-부분자적(部分的) 세계관)
  - 가(家) 중심의 가치체계가 유교문화의 핵심
  - 나(自家) → 혈연집단(本家) → 생업집단(業家) → 국가(國家)로 확대

## 派閥의 특징

### 집단간 폐쇄성

- 집단 내부의 구성원 간에는 높은 연결밀도가 존재하되, 집단 밖의 인물과는 완전히 단절

### 집단내 위계성

- 내부 성원간 관계가 주종적(主從的). 추종자는 보스를 절대시하며, 보스는 추종자에게 다양한 배려와 편익을 제공
- 상하(上下), 존비(尊卑), 귀천(貴賤)으로 구분하고 평가

### 관계의 '비공식성'(非公式性).

-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절차에 반하는 인습적(因襲的)이고 감정적인 의리나 인연과 같은 것이 앞섬

### '집단에 대한 강한 귀속감'.

- 자신의 이해관계를 자신이 속한 파벌의 이해관계와 동일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월시하고, 타 집단을 비하하는 자기집단 중심주의적 태도.

## 人脈의 특징

### 연결성.

-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혹은 한 두 다리를 건너서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 연결의 강도

- 관계의 중첩성 (multiplicity), 접촉의 빈도 (frequency), 그리고 관계의 지속기간(duration)이 길수록 인맥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

### 인격윤리

- 인맥은 인격윤리(personalist ethic)가 작동하는 경우에 그 힘이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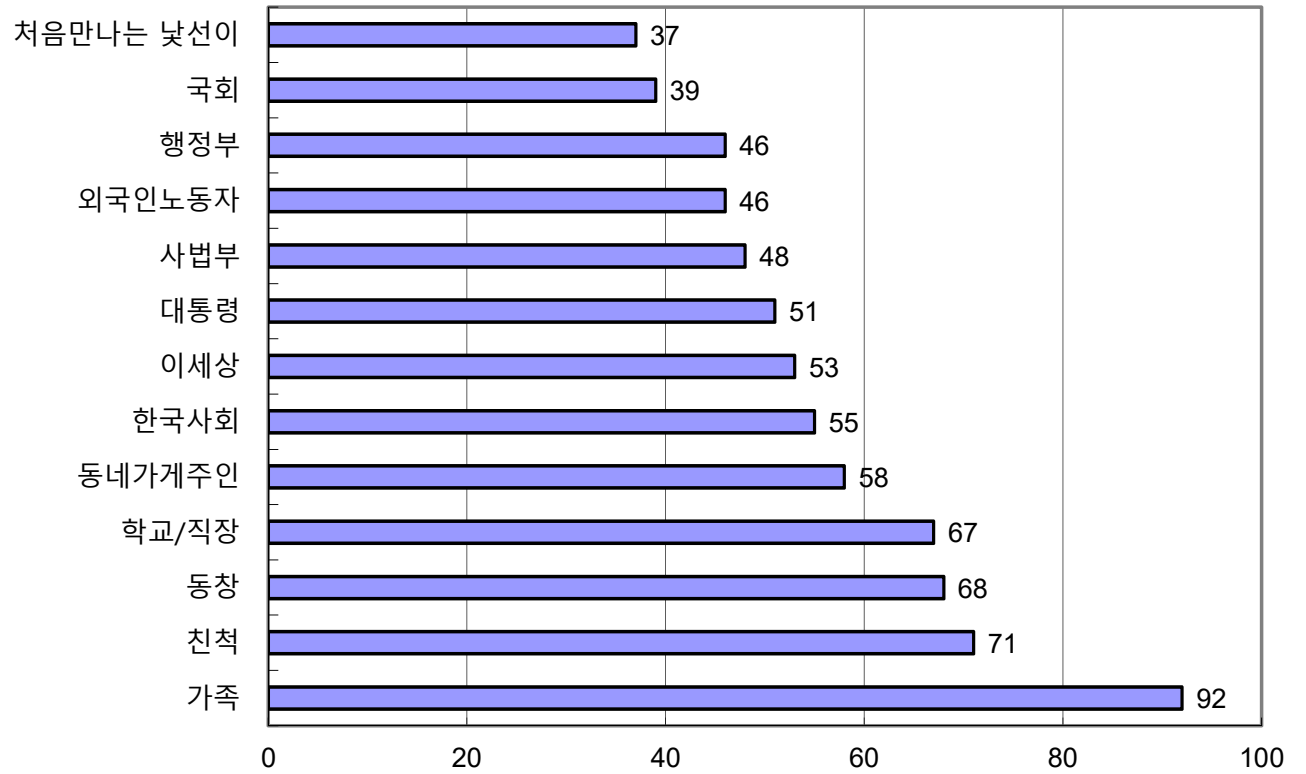
### 호혜성

- 충성(loyalty)과 보호(patronage)의 교환관계로 엮인 수직적 관계이건, 혹은 정보와 통제의 상호교환으로 맺어진 수평적 관계이건 간에 인맥은 일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장기적으로 지속.

## 파벌과 인맥의 쌍대성

- 인맥은 파벌이 강한 사회에서 유용
- 파벌의 결속과 강화에 영향을 미쳐 인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투명한 규칙 부재가 만들어낸 환경의 불확실성
  - 투명한 규칙은 공권력이나 정부체계에 대한 신뢰와 밀접히 관련
  - 그동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음.
  - 특히 국회, 사법부, 행정부의 신뢰도가 가장 낮음
  - 입법, 사법, 행정 등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며 위반자를 처벌하는 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유독 크다는 것은, 비유컨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심판 판정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
- 인맥 활용은 규칙의 일관성이 없는 사회에서 공식적 통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선택됨 (패스워드 시스템)

대상에 따른  
신뢰점수  
(동아시아연  
-한국일보  
2005)





## 두가지 사회자본

### 관계자본:

- 전통적인 연줄
- 구체적 개인과의 관계를 동원해 자원이나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

### 사회의 도덕적 자원:

- 구성원들간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아서 집합행동을 촉진시키는 제도화된 도덕적 자원
- 규칙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가능케 하는 규범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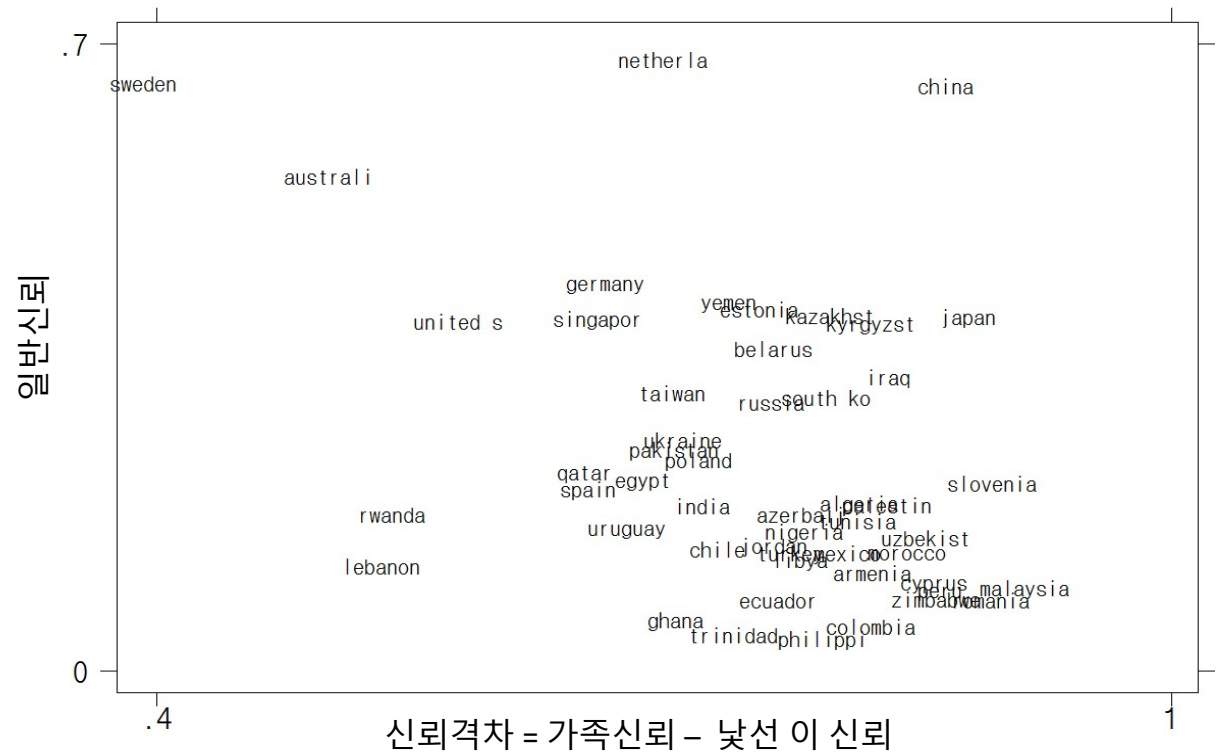
## 일반적 신뢰의 역할 (신뢰의 반경)

<Table> 주요 국가의 일반신뢰와 신뢰격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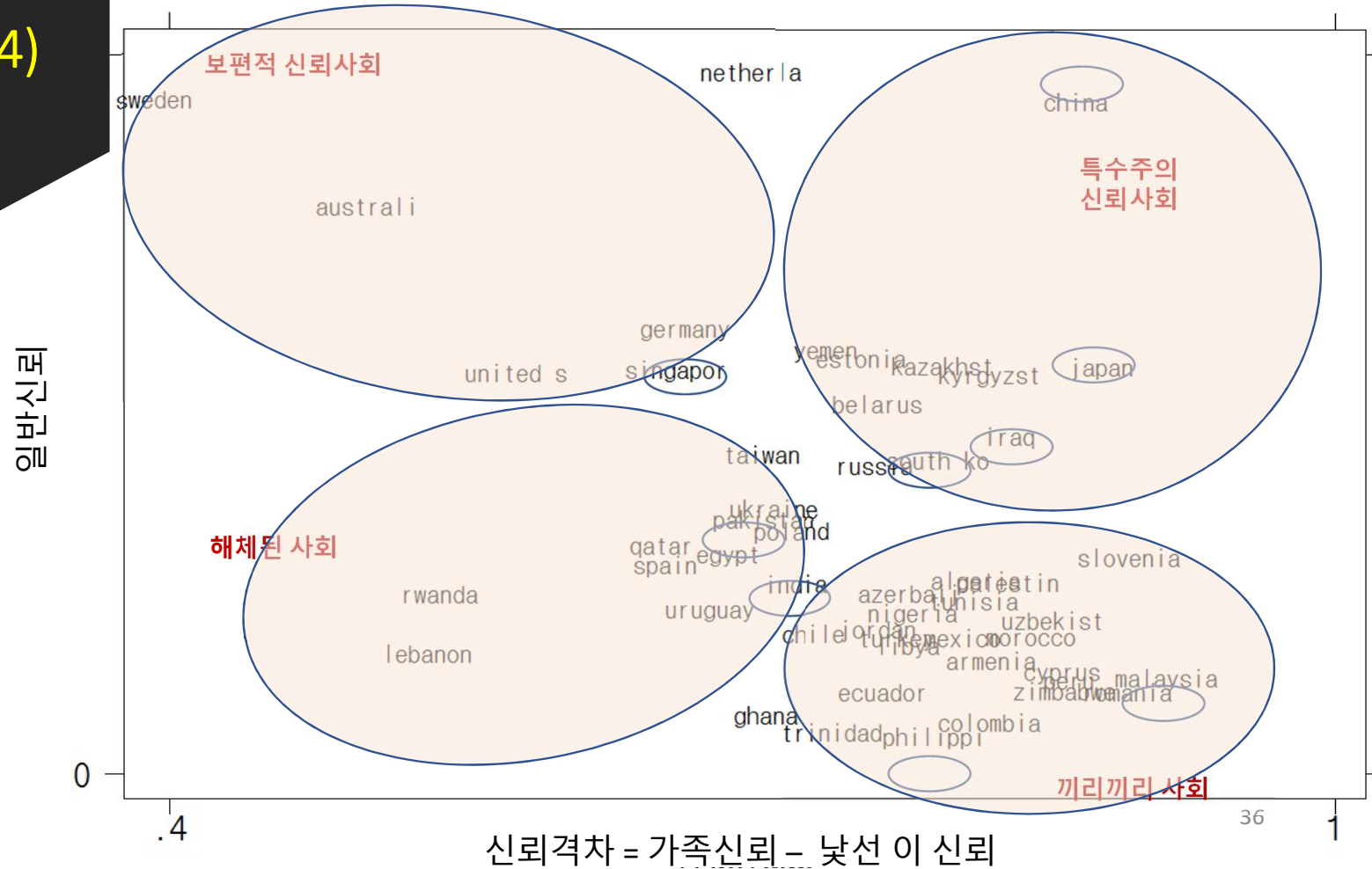
	일반신뢰	신뢰격차
중국	60.3	83.5
스웨덴	60.1	41.7
호주	51.4	54.3
독일	44.6	64.0
일본	35.9	88.1
미국	34.8	59.6
대만	30.3	69.9
한국	26.5	78.7
말레이시아	8.5	91.3

- 높은 일반신뢰 수준이 바람직한 도덕자원.
-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적 차별은 신뢰를 저하시킴
- 개신교국가와 왕정국가의 일반신뢰가 높고, 탈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신뢰는 낮음

# 신뢰격차와 일반신뢰 (WVS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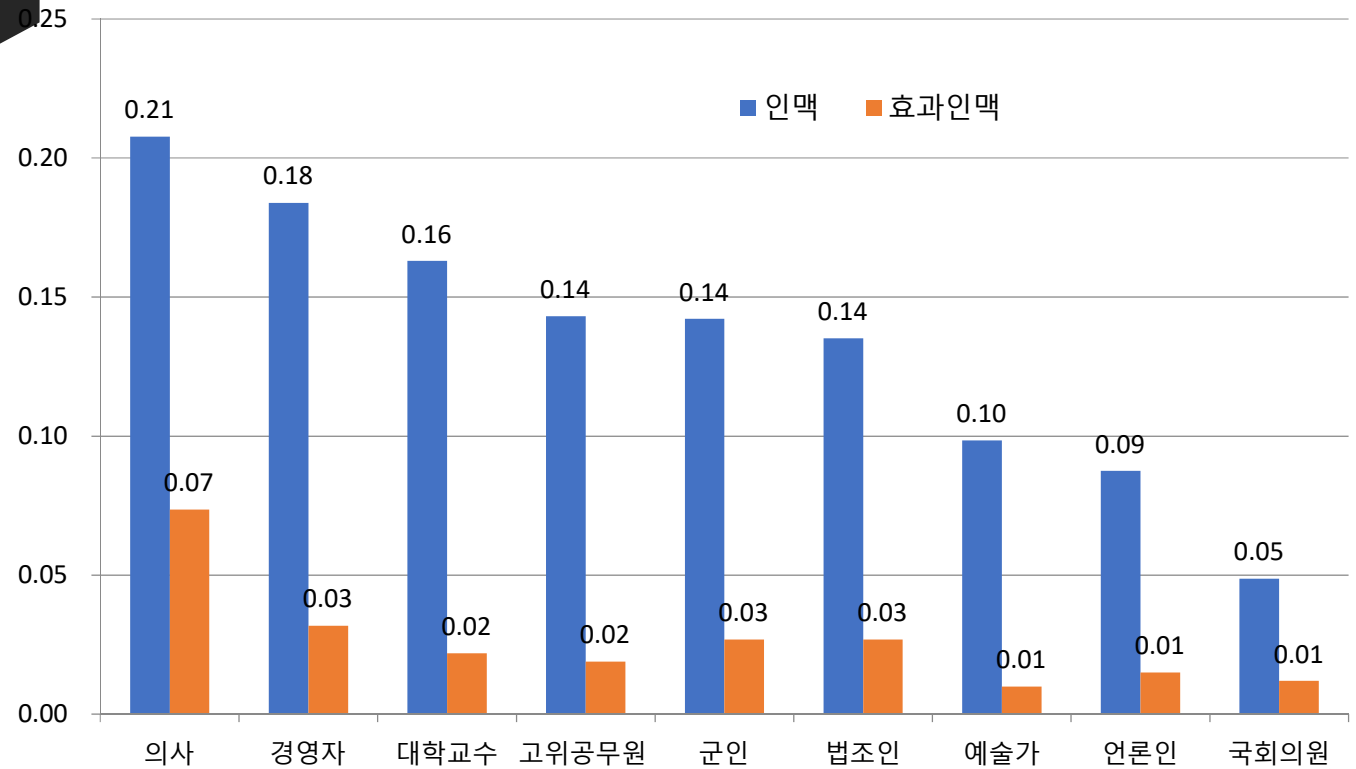


# 신뢰격차와 일반신뢰 (WVS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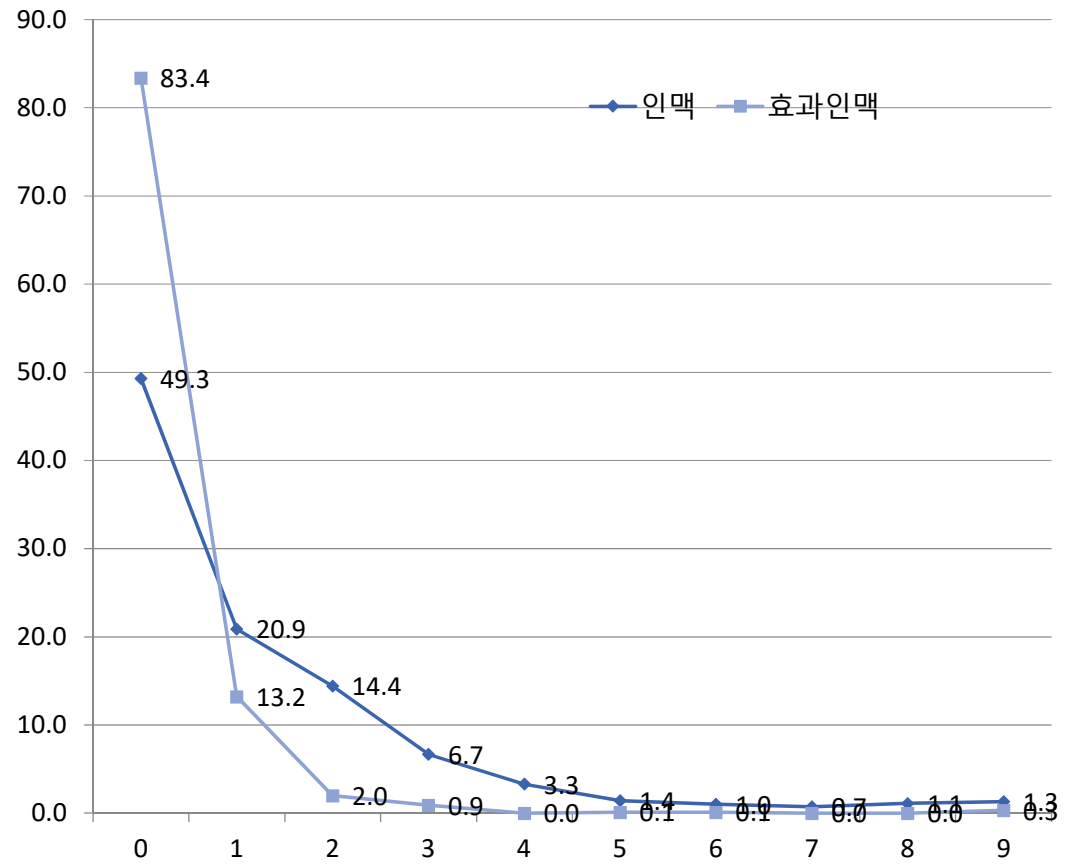


# 인맥의 대상인 타자의 분포 (2014)

'한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연고의 대상자 중 중요한 정보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동원 능력'



# 인맥의 분포





## 인맥분포의 불평등

- 전체 응답자 중 83퍼센트는 인맥의 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반면,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극소수 응답자는 모든 직종에서 인맥을 활용.
-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소득이 0.30~0.35 사이, 경제적 자산이 0.616에 불과한 반면, 인맥자산은 0.815로서 거의 완벽한 불평등을 나타냄

## 효과인맥의 대상

---

- 부패가능성이 가장 큰 곳
  -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의사(7퍼센트), 법조인(3퍼센트), 경영자(3퍼센트), 군인과 경찰(3퍼센트) 등의 순
- 그러나 의사가 11만 명이 넘는데 비해 4급 이상 행정부 공무원은 6000여 명, 국회의원은 3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인당 영향력을 추정해보면:
  - 공무원은 의사의 약 5배, 국회의원은 의사의 약 50배
  - 5000명 내외인 판검사의 영향력도 이들 못지않게 막강할 것.
- 성완종 리스트가 왜 정치권에 집중됐는지, 그의 '의리'가 얼마나 인맥자산에 대한 정교한 투자 논리였는지를 잘 보여줌.
- 김영란법이 국회를 거치면서 핵심적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지고 그 대신 대상 범위가 언론과 교육계로 확산.



## K형 경영과 A형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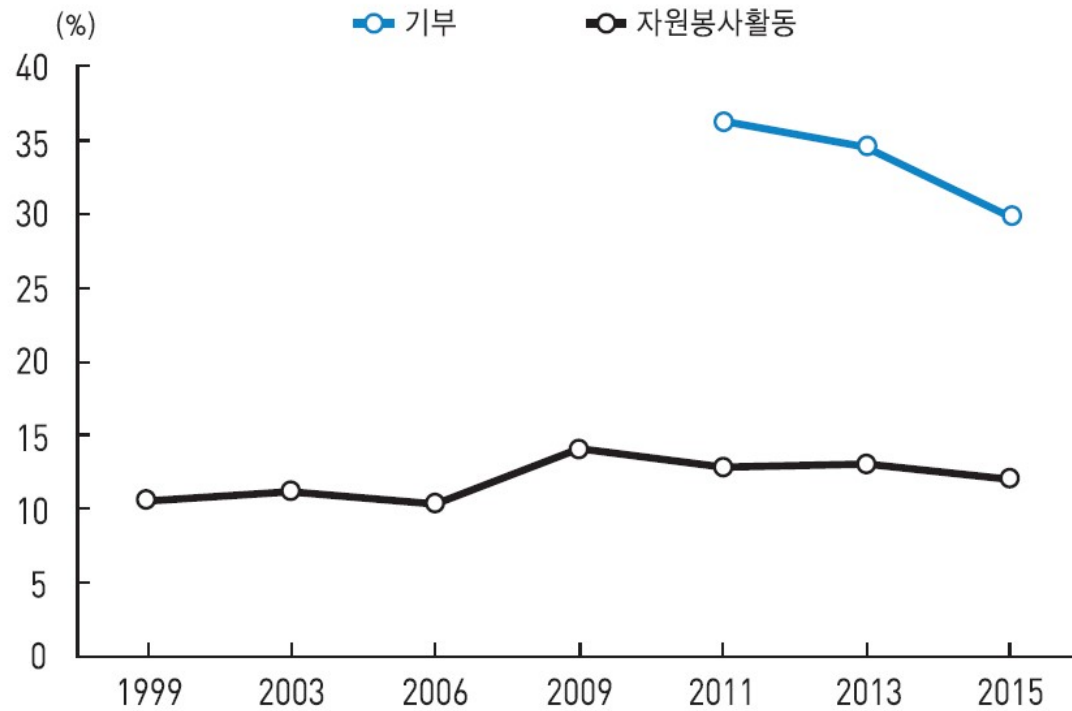
### K형 경영

- 왕도정치
- 의기투합형 문화
  - 신뢰기반
- 내부거래비용감소
- 위계화된 지분소유
  - 성과진폭 큼
- 무력한 이사회

### A형 경영

- 왕도정치
- 의기투합형 문화
  - 신뢰기반
- 내부거래비용감소
- 위계화된 지분소유
  - 성과진폭 큼
- 무력한 이사회

#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99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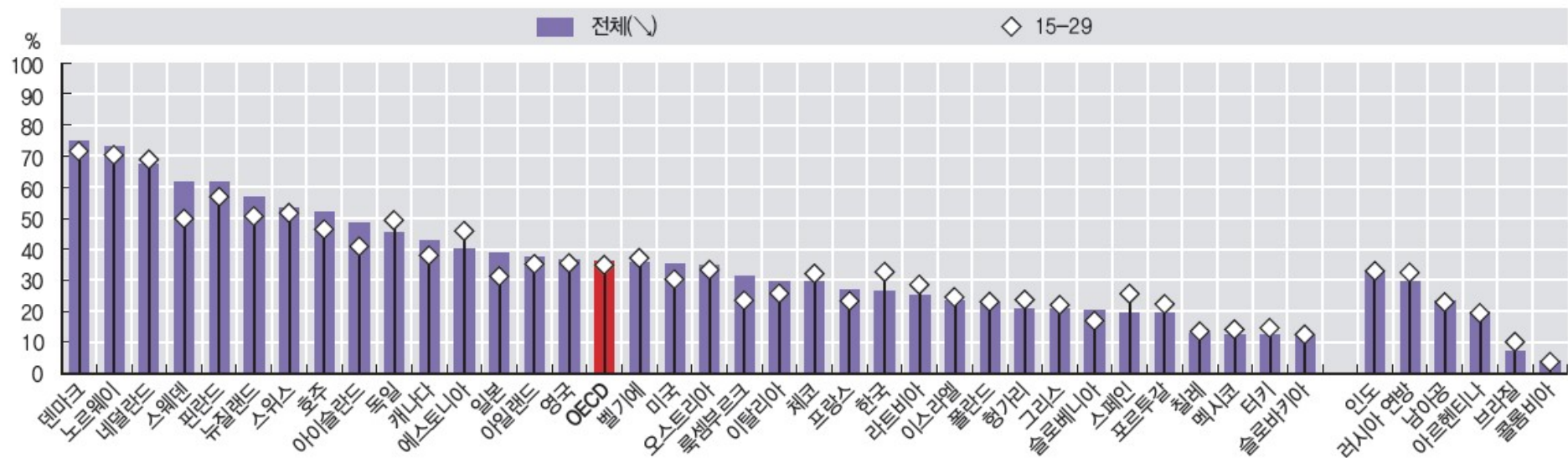
주: 1) 기부참여율은 만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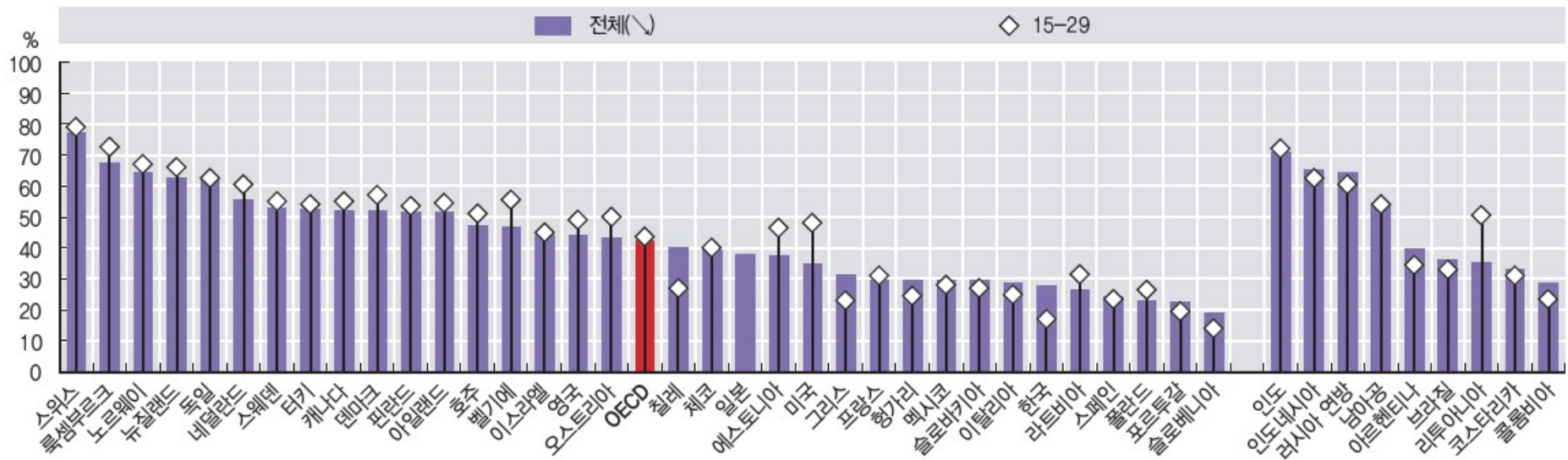


출처: World Value Survey(wave 6: 2010-14) for countries present in wave 6, WVS wave 5 (2005-09) for Canada and WVS Wave 4 (1999-2004) for Israel.  
European Values Survey(EVS) (2008-10, wave 4) for all other countries.

<http://dx.doi.org/10.1787/888933405711>

# 정부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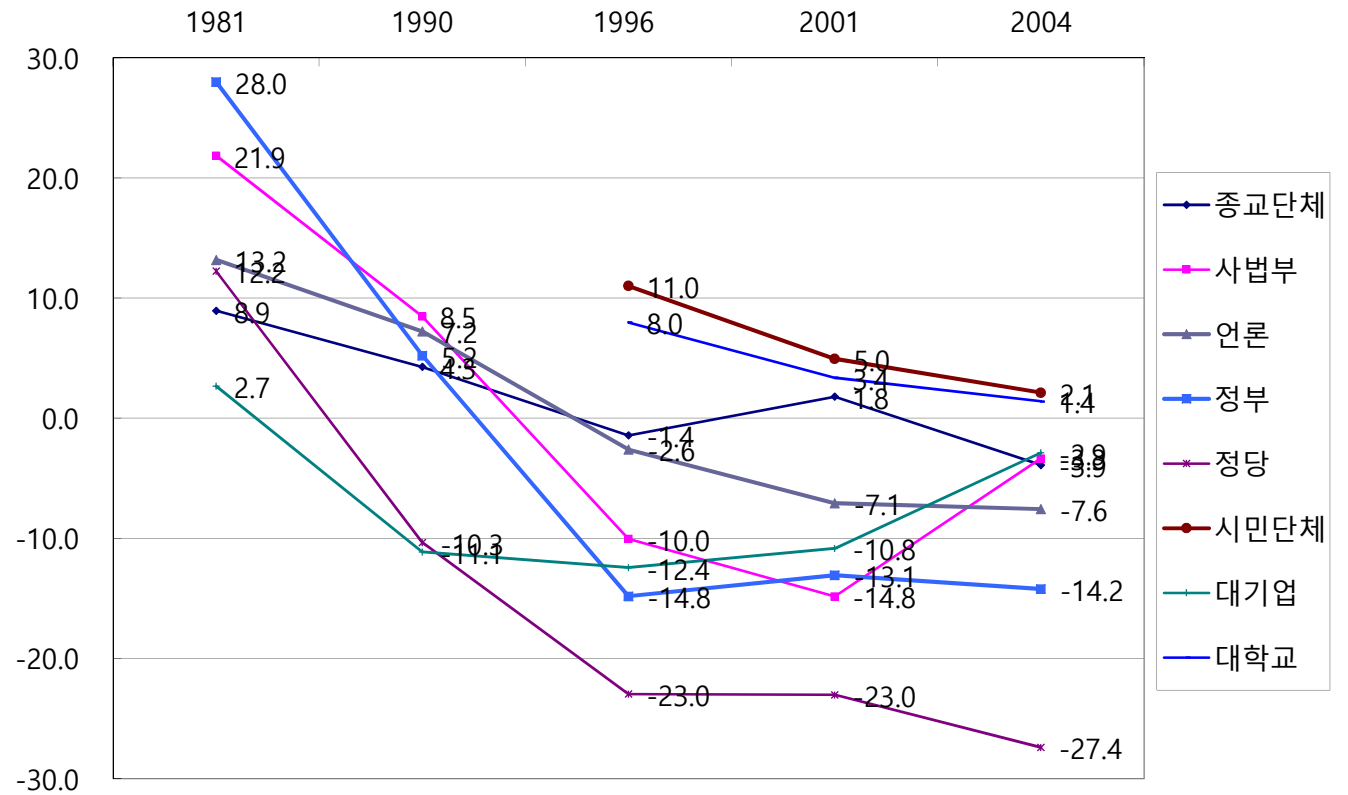
연령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평균 20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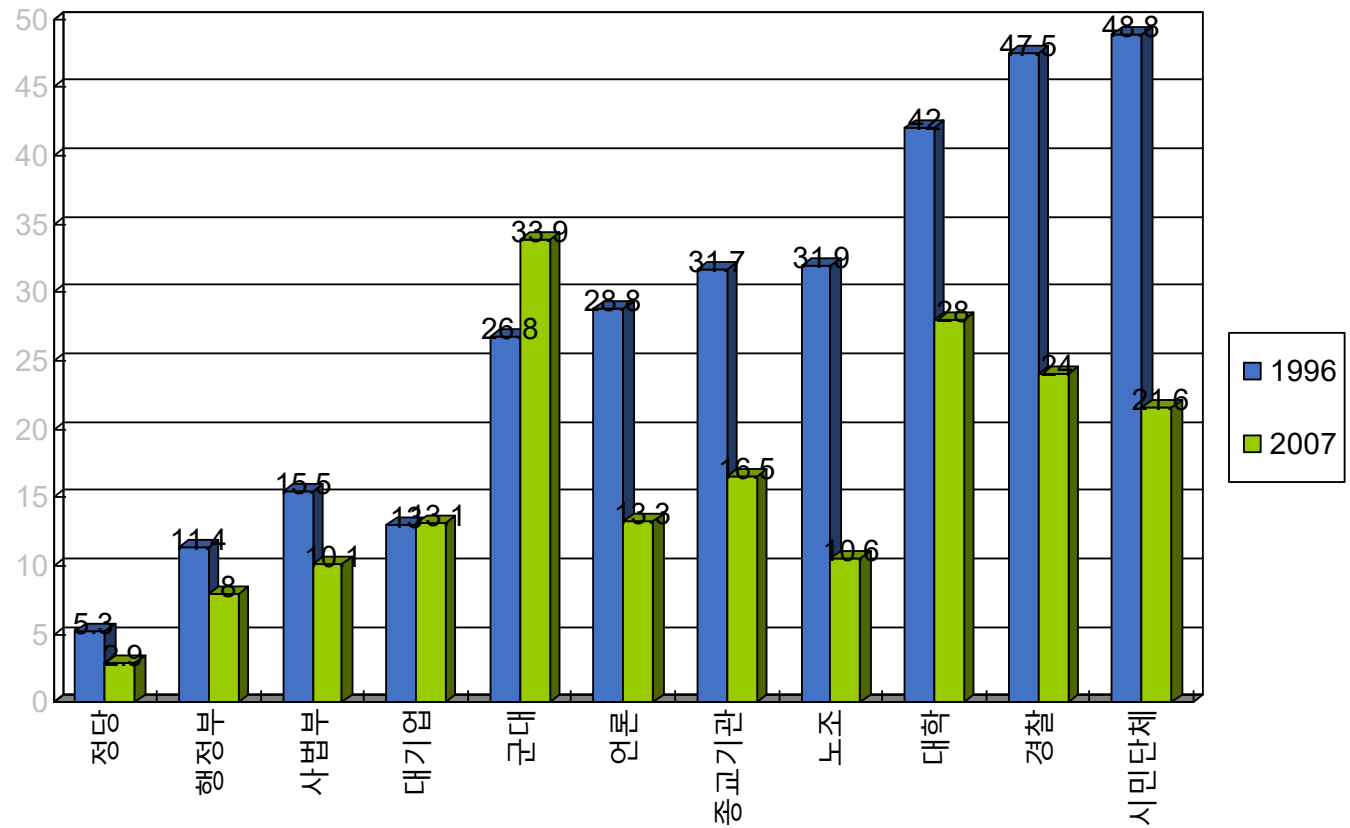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www.gallup.com) extracted at January 2016.

<http://dx.doi.org/10.1787/888933405726>

# 제도에 대한 신뢰의 하락: 1981-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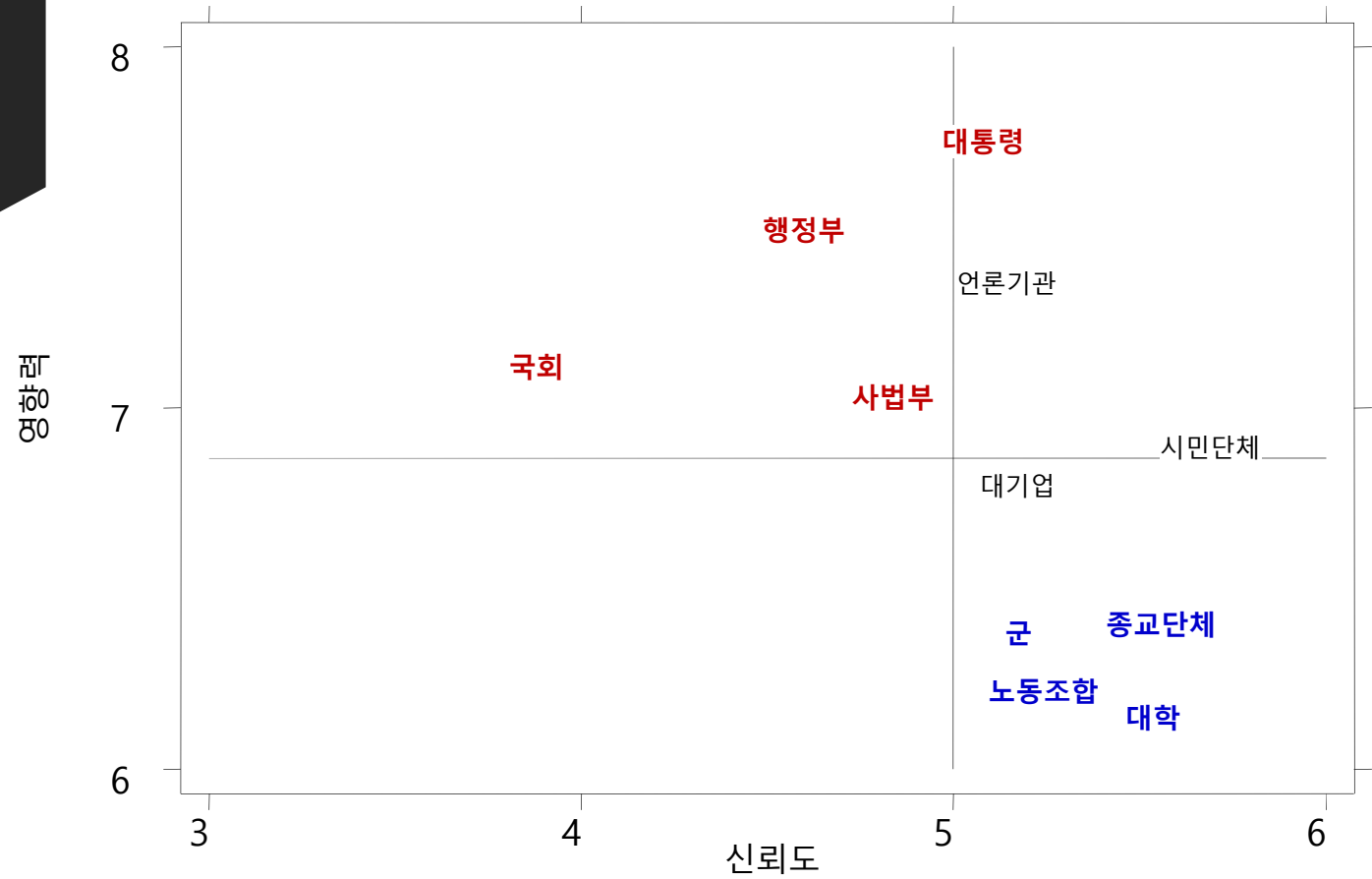


# 제도/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영향력이 높은 기관일수록 불신의 대상



출처: EAI-한국일보조사, 2005

## 불신이 가져온 댓가

### 경제성장의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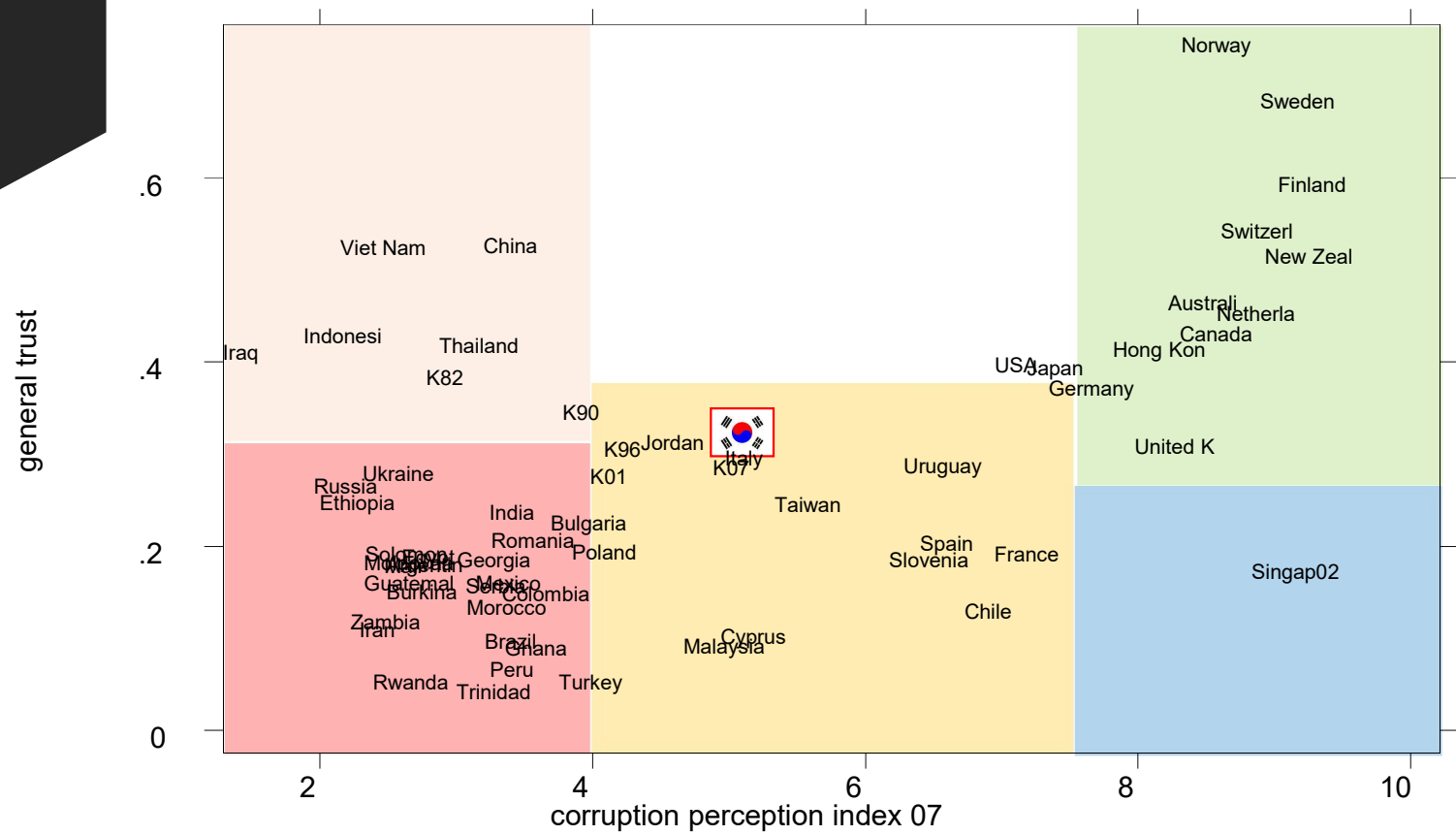
-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이라면,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했었다 (차문중, 2007).
- 법치주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 사회갈등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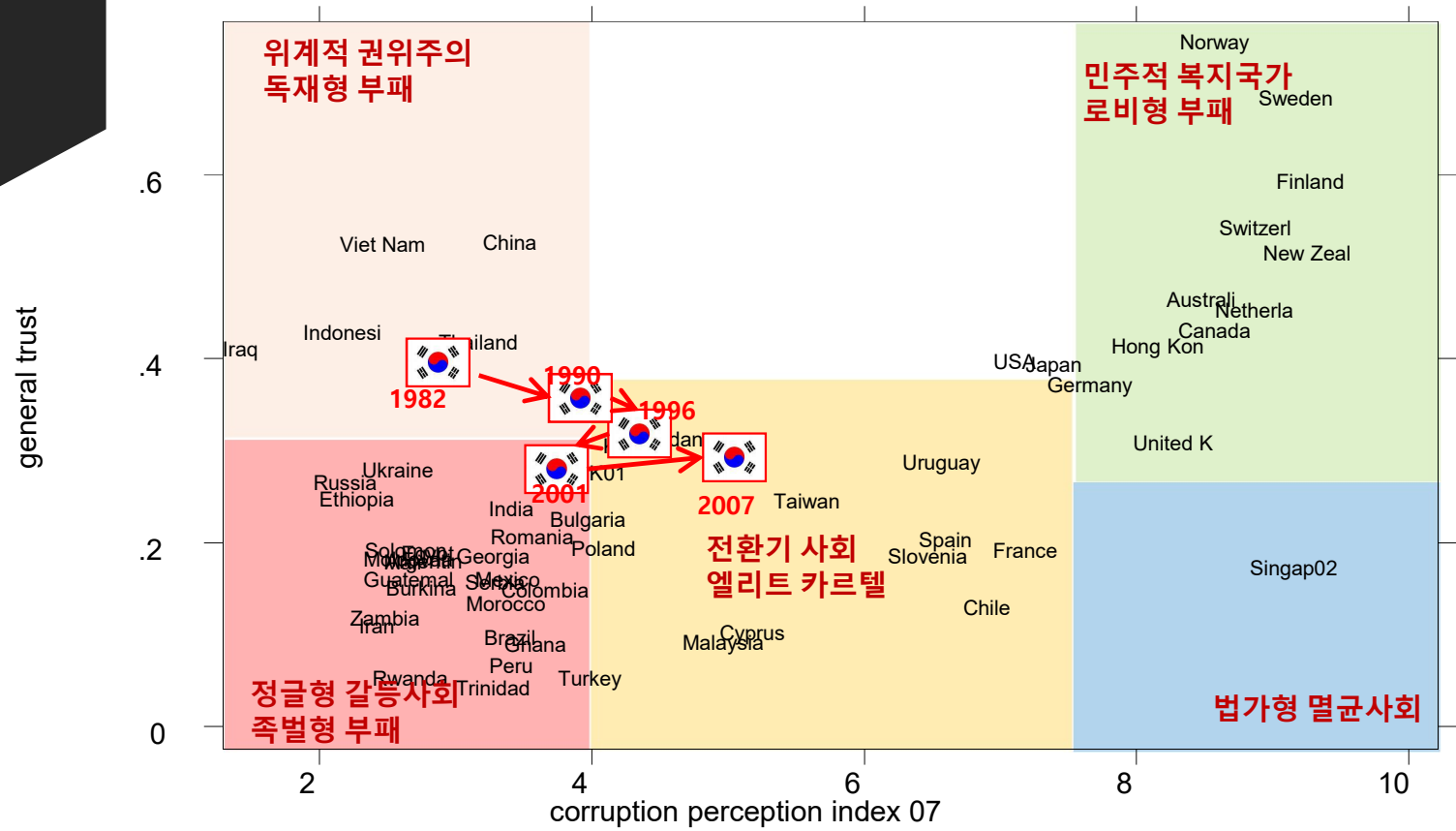
- 사회적 갈등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증가해 왔으며,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음
- 투명한 사회에서만 균형과 대화, 타협도 가능해지고 사회적 통합도 높아질 수 있음.



# 일반신뢰와 투명성: 체제유형과 한국의 진로, 1982-2007



# 일반신뢰와 투명성: 체제유형과 한국의 진로, 198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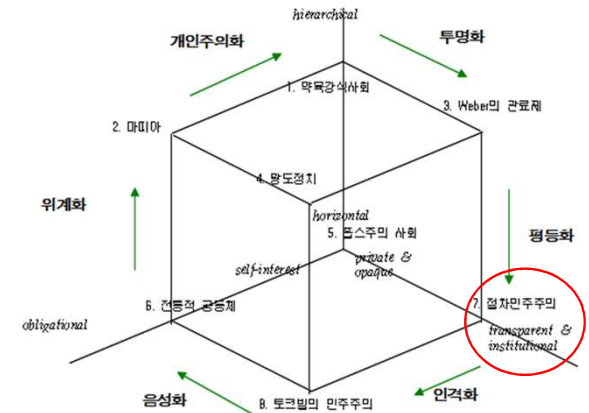
## 목차


- 왜 신뢰인가
- 신뢰의 사회적 맥락
- ✓ **불신의 제도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 사회의 품격
- 비영리의 미래

# 불신의 제도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도덕적 토대

- 고전경제학
  - ‘개인간 유대와 신뢰형성은 공중에 반하는 음모’
- 고불신체제:
  - 행위자에 대한 불신을 최대한 고려해 만든 체제
- 민주주의
  - 불신의 제도화 (견제와 균형)
  - 선출된 지도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 자본주의 시장경제
  - 무임승차나 기회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를 제도화

-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다른 체제보다 더 많은 사회적 신뢰를 생산하는 이유는, 신뢰받는 사람의 배신행위에 대한 기회비용과 위험부담을 높여주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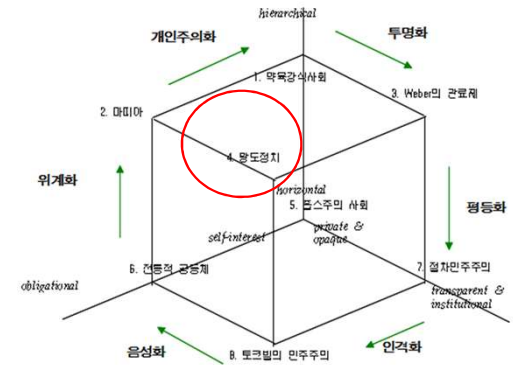
A photograph of Adam Szymborski, a Polish poet and politician, speaking at a podium. He is wearing a dark suit, a white shirt, and a dark tie. He is holding a microphone in his right hand and gesturing with his left hand. The background is dark with a large, blurred emblem of the Polish coat of arms (Biały Orzeł) visible.

민주주의는 불신을 제도화한 것  
명료하고 분명한 소통이 중요

(아담 쉘보르스키)

# 고신뢰체제:

- 왕도정치
  - 지도자의 도덕적 모범과 덕치를 통한 행위자의 선의를 도모하는 대동사회
- 공산주의:
  -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이타주의를 극대화하는 유토피아
- 고불신체제의 지속성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고신뢰체제의 폭력성
  - 왕도정치 이상의 가산관료화 (마피아화)
  - 중국의 문화혁명, 스탈린식 동원





맥락의존적/ 위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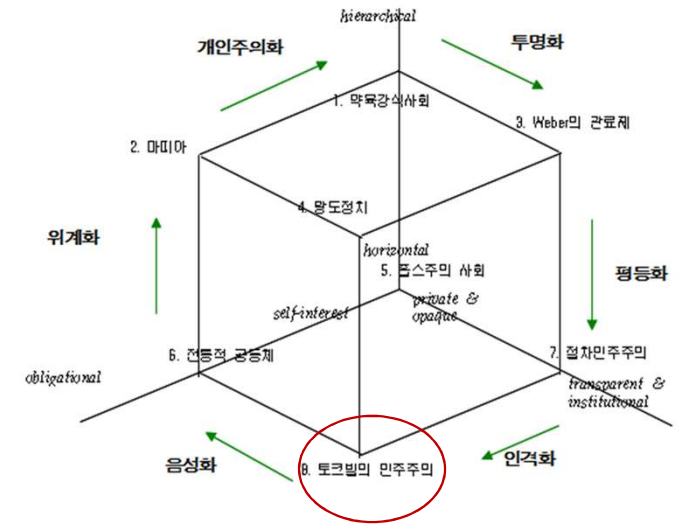
눈치의 중요성

'다테마에(建前)'와 '혼네(本音)'

세종대왕

# 신뢰 생산의 경 로: 토크빌식 민주주의

- 신뢰와 불신간의 비대칭성
  - 신뢰는 구축하기는 어려우나 파괴하기는 쉬우며 일단 파괴된 신뢰를 재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고불신체제에서의 인격화
  - 기술적/형식적 합리성을 공동체적 신뢰로 보완
- 가부장적 공동체에서 투명화/평등화
  - 권력구조의 민주화와 상호 견제
- 경제적으로는 에밀리아형 생산체제에 대응





## 목차

- 왜 신뢰인가
- 신뢰의 사회적 맥락
- 불신의 제도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 ✓ **사회의 품격**
- 비영리의 미래

격이 있는 사회

= 통합된 사회

= **사회성(the social)**이

좋은 사회

사회성 =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보이는  
구성적 특징

## 미시-거시 연계, 혹은 '사회성'의 구성

- 사회성은 사회적 존재인 개인의 자기실현과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에 의해 구현됨.
-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냄 (저출산과 사회재생산의 위기)

## 사회성에서의 불평등 혹은 기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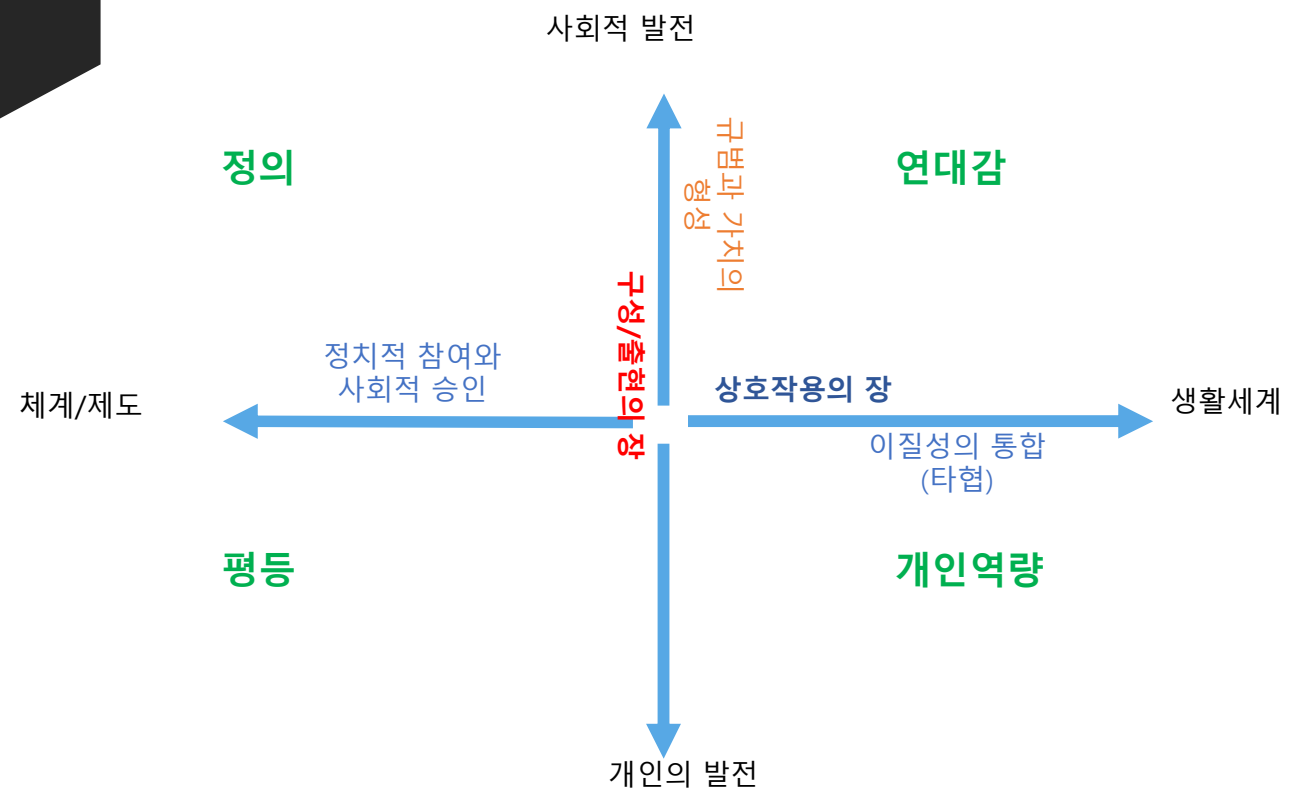
- 권력과, 지위, 전망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평등한 관계가 존재

## 사회성의 구현과 사회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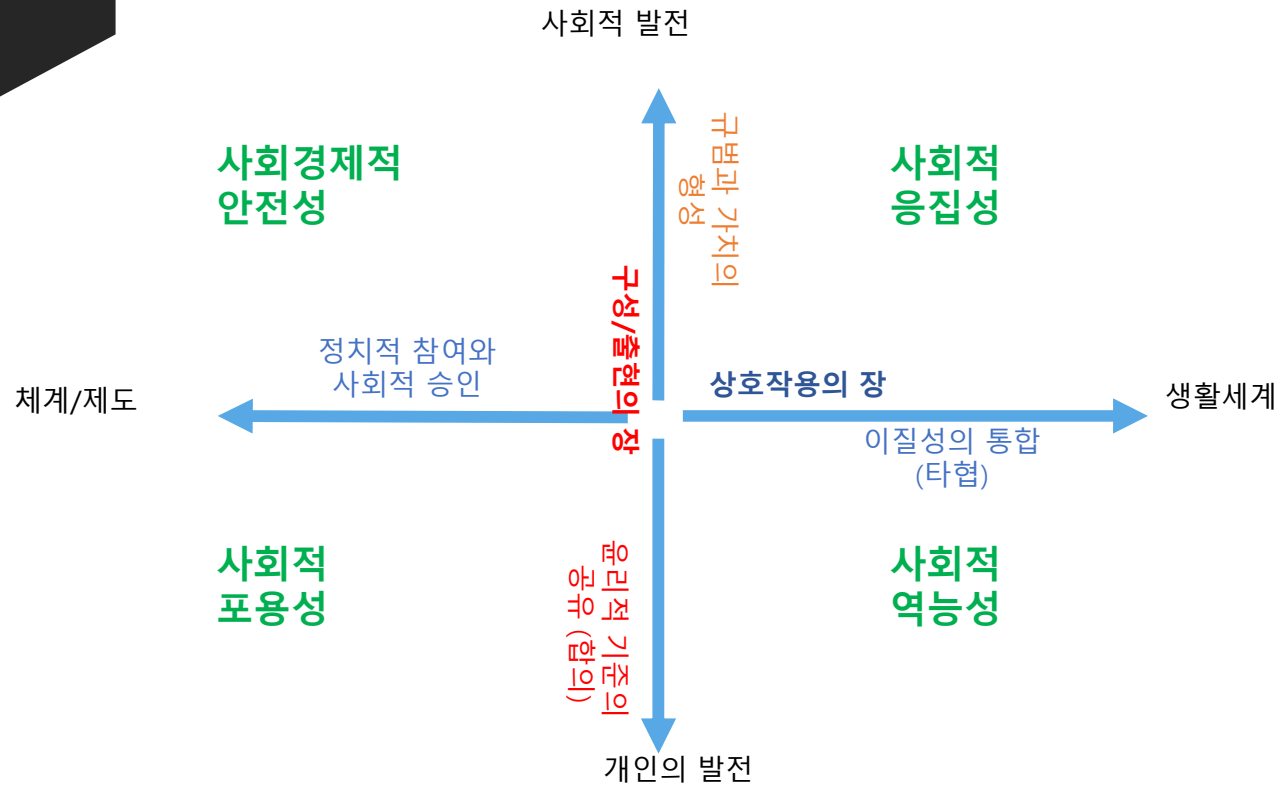
- 사회성의 성격, 내용, 범위, 형태 등은 수평적, 수직적 긴장과 균형에 의해 구체화됨.

**사회성의 발현과 공동체 = 사회의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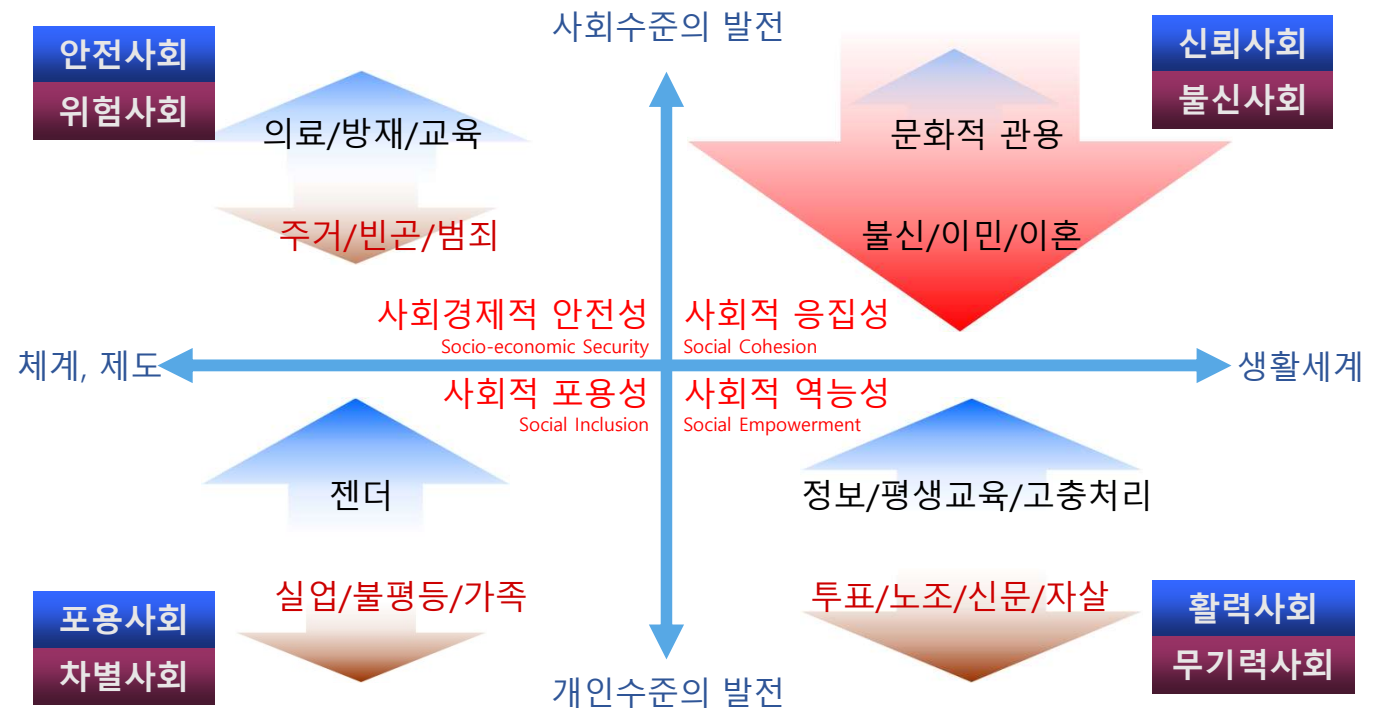
# 사회성의 발현: 지향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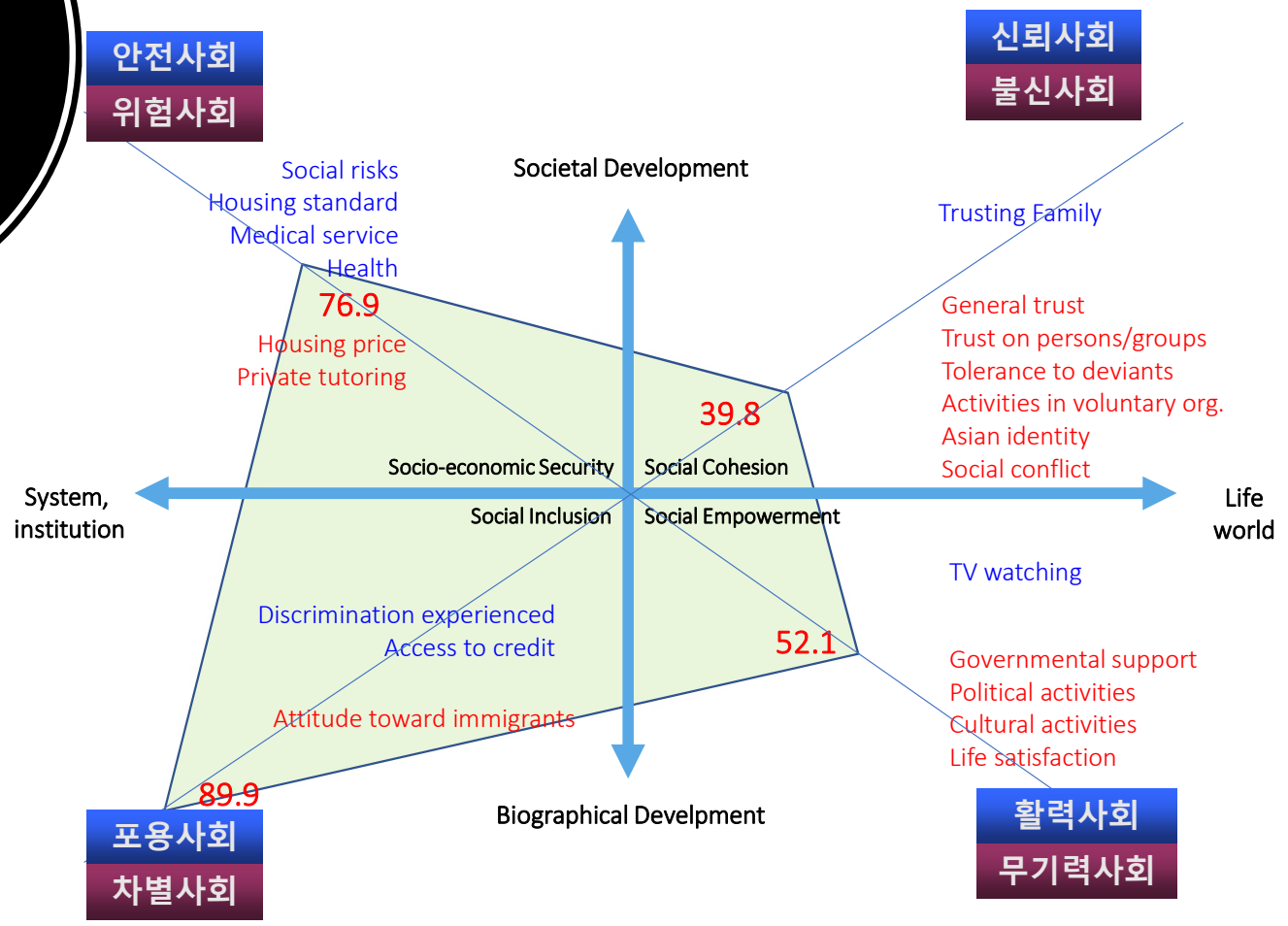
# 사회성의 발현: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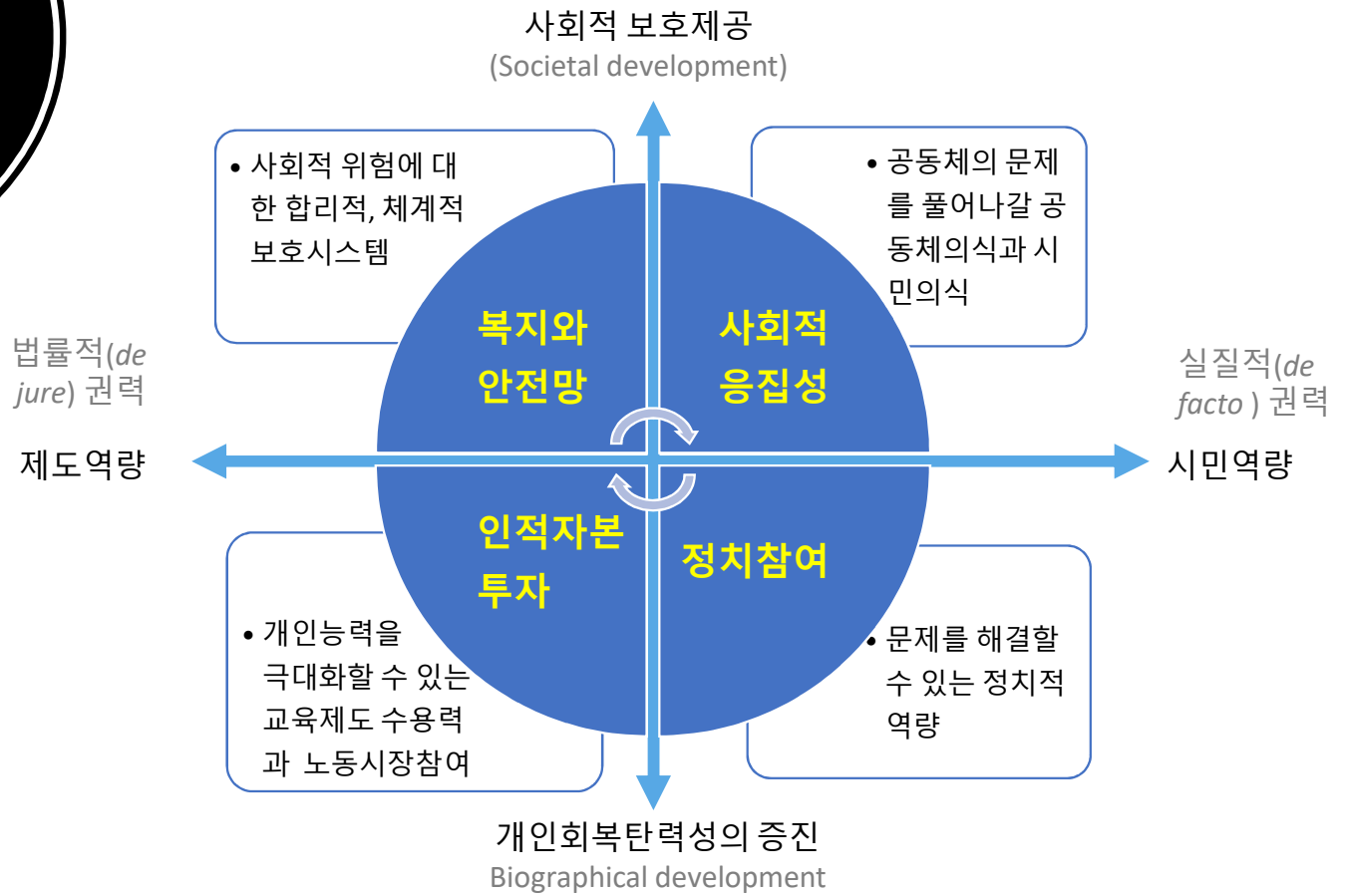
# 사회의 품격: 1997-2007



# 국민의식 조사결과 (2009)



# 사회의 품격 모델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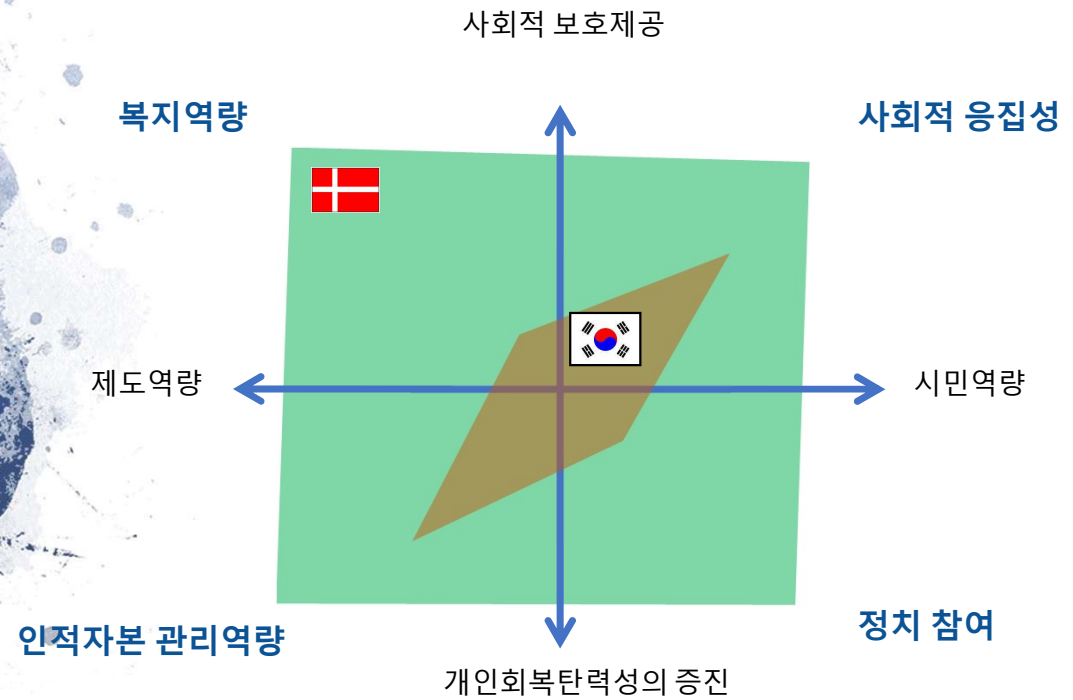
# OECD 국가들의 사회의 질 순위 (2011)

순위	국가
1	덴마크
2	아이슬란드
3	스웨덴
4	노르웨이
5	핀란드
...	...
<b>28</b>	<b>한국</b>
29	멕시코
30	터키

30개국 중	<b>28위</b>
복지	<b>29위</b>
인적자본	<b>18위</b>
사회응집성	<b>23위</b>
정치참여	<b>29위</b>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 한국(28위)과 덴마크(1위)의 사회의 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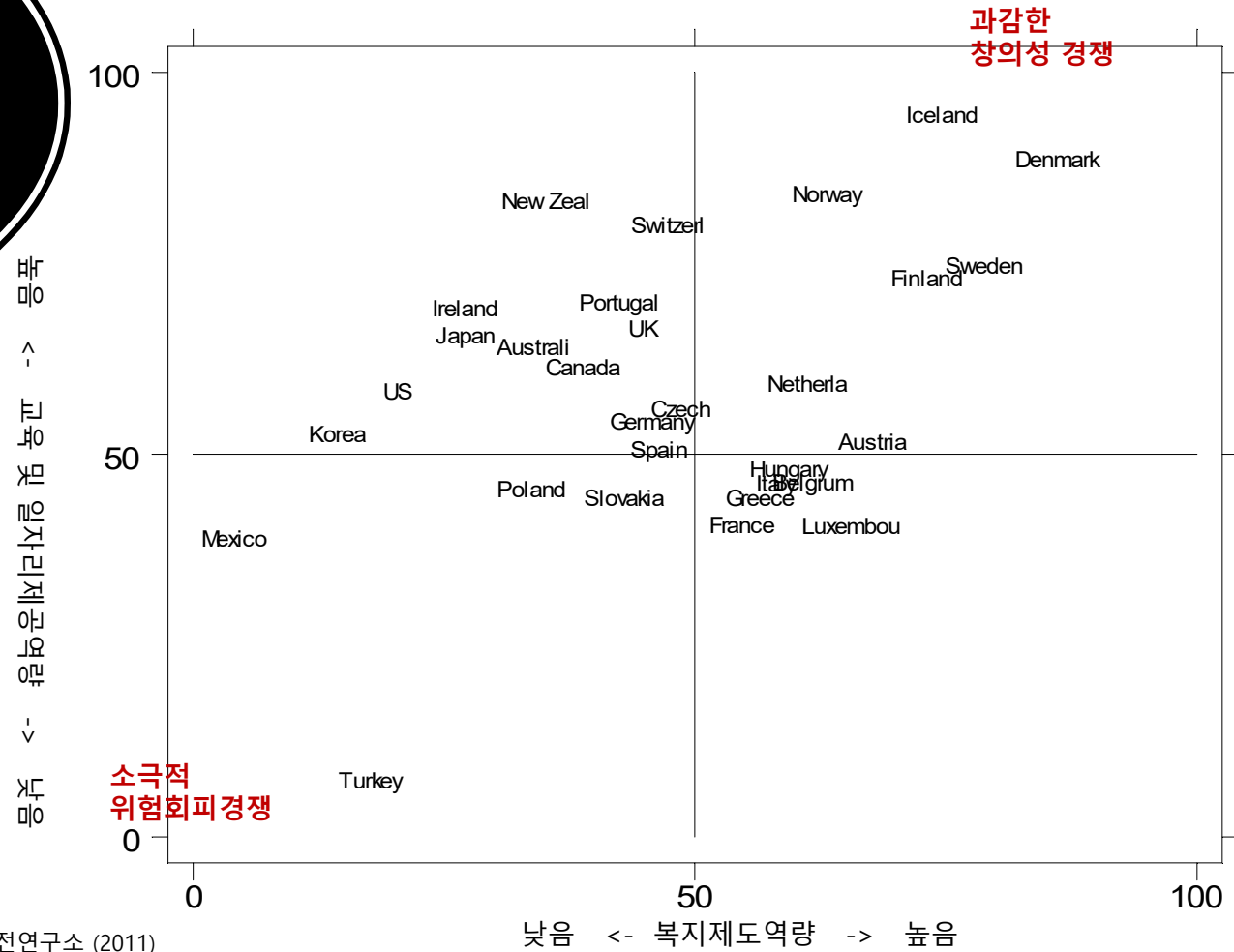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한국과 비슷한  
소득수준이었을 때  
선진국의 사회적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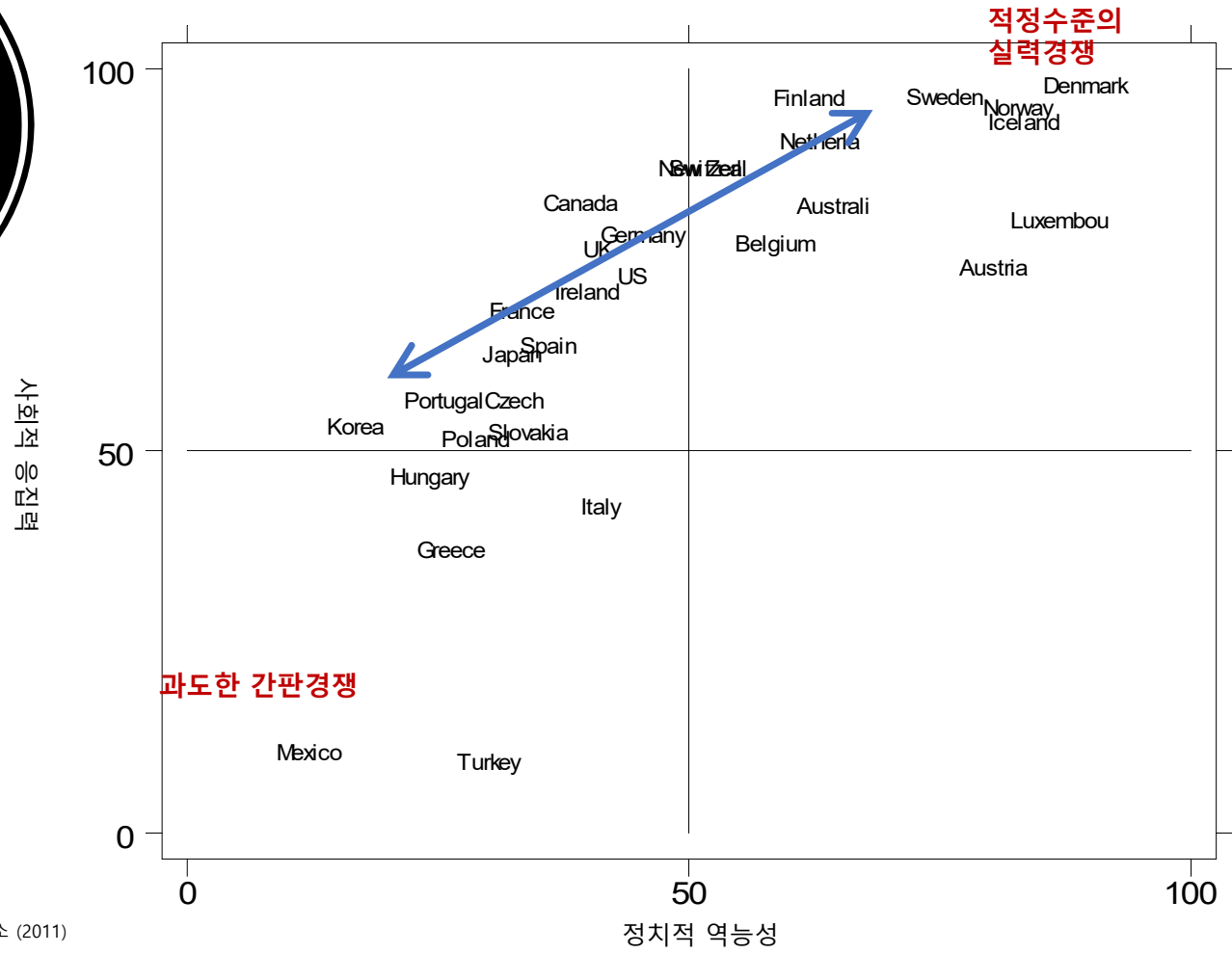
	한국 2007	Nordic Model		Continental	
		노르웨이 1983	스웨덴 1988	독일 1991	영국 1996
GDP per capita (\$)	22,892	22,475	23,047	22,734	22,908
평등과 분배정의 (복지, 재분배)	1.0	4.2	5.7	3.1	2.8
역량개발 (교육, 일자리)	1.0	0.9	1.0	0.8	0.9
사회적 응집성 (투명성, 평등, 신뢰)	1.0	1.9	2.0	1.4	1.4
역능성 (투표 및 정치참여)	1.0	2.1	2.2	1.5	1.8

# 창의성 경쟁인가 위험회피경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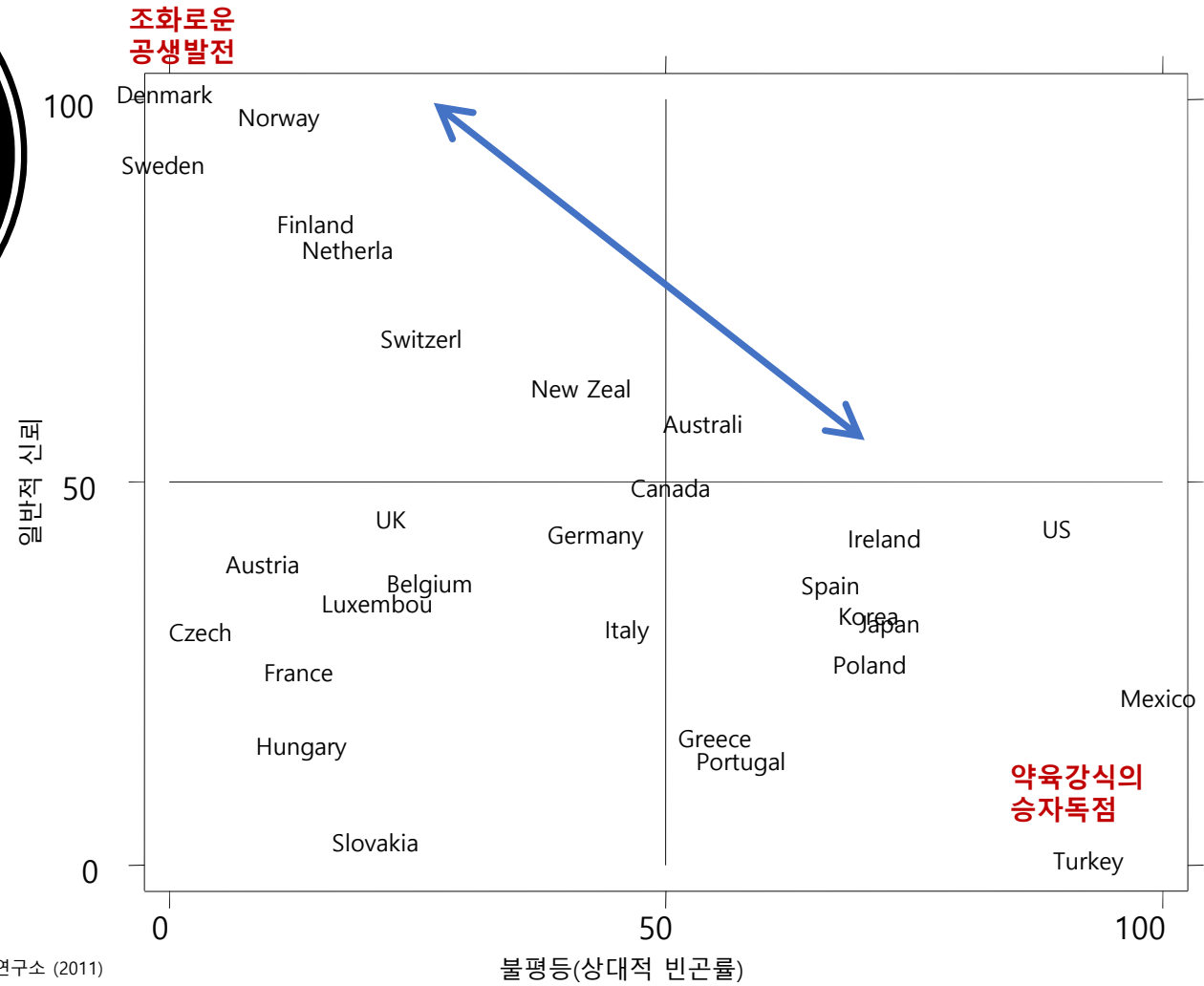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 실력 경쟁인가, 간판경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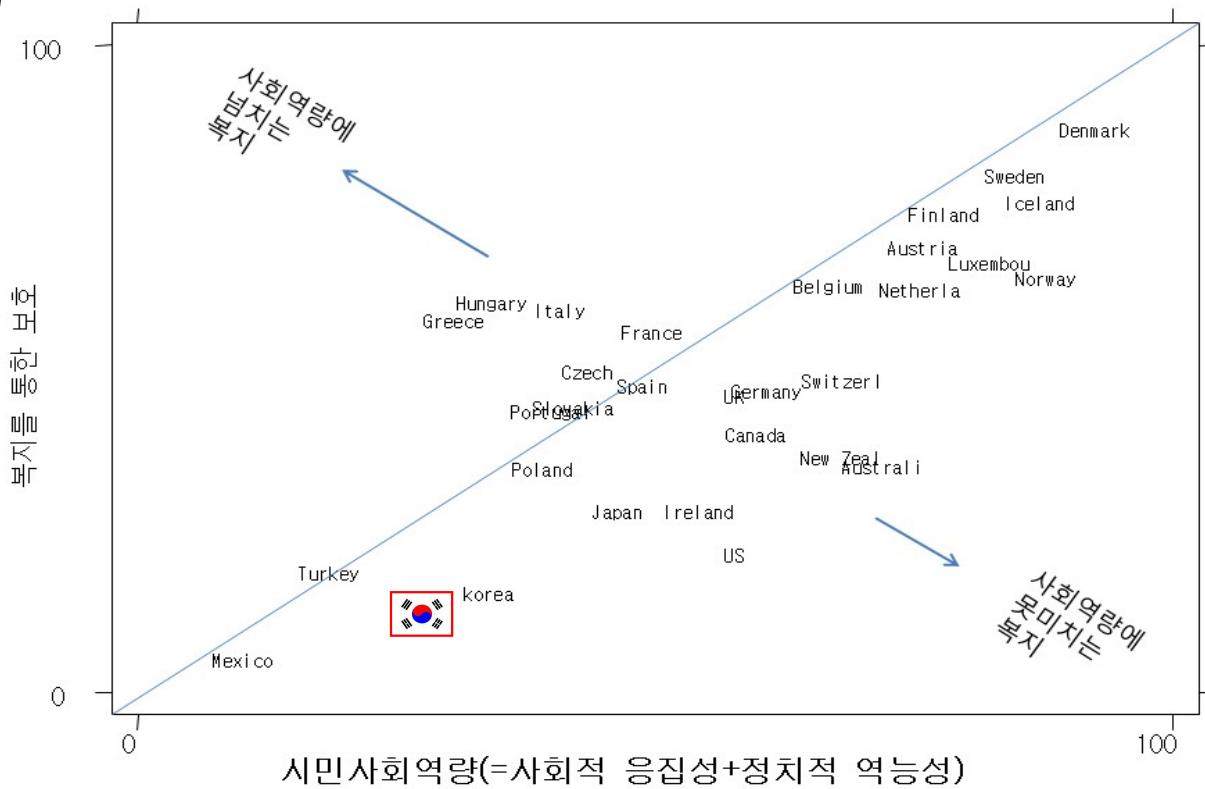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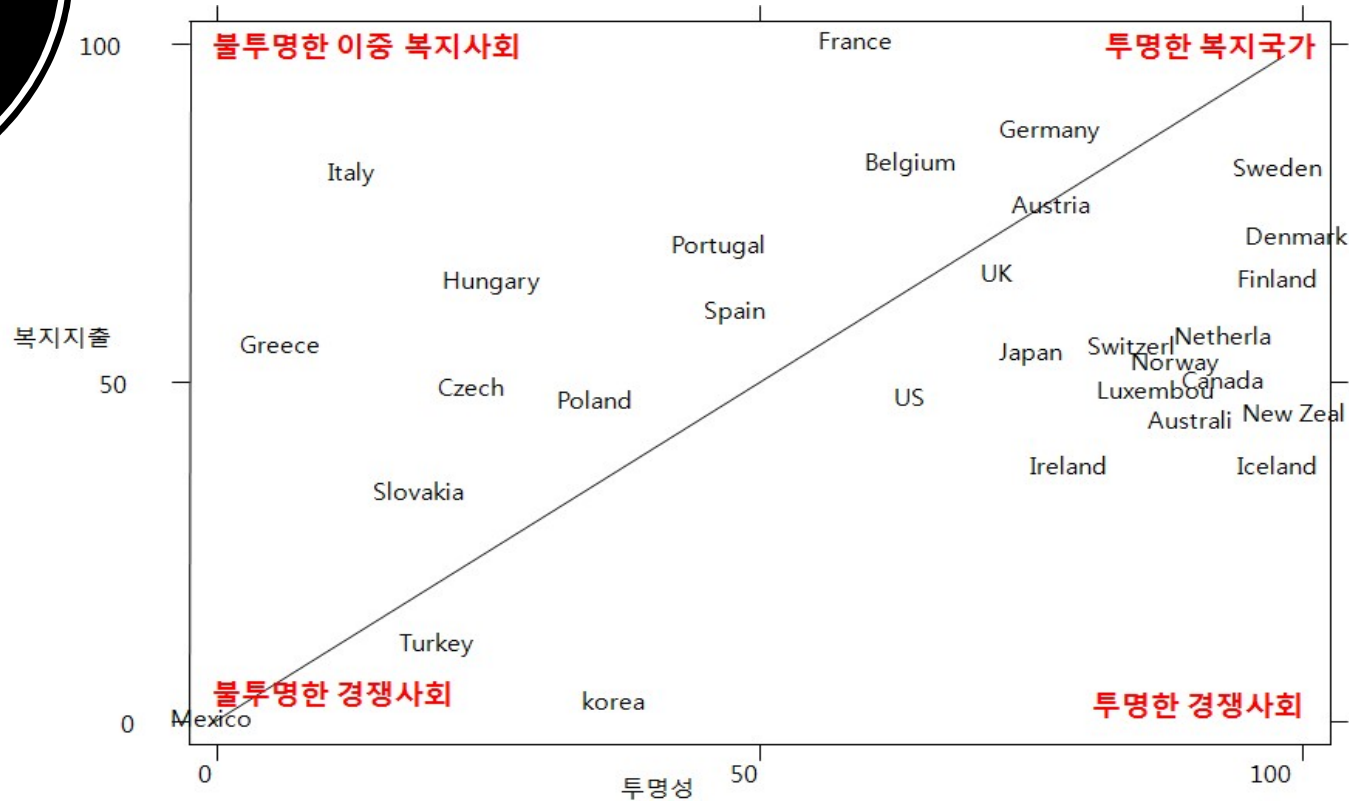
# 공생 발전인가 승자독점인가



# 시민사회역량 과 복지를 통한 보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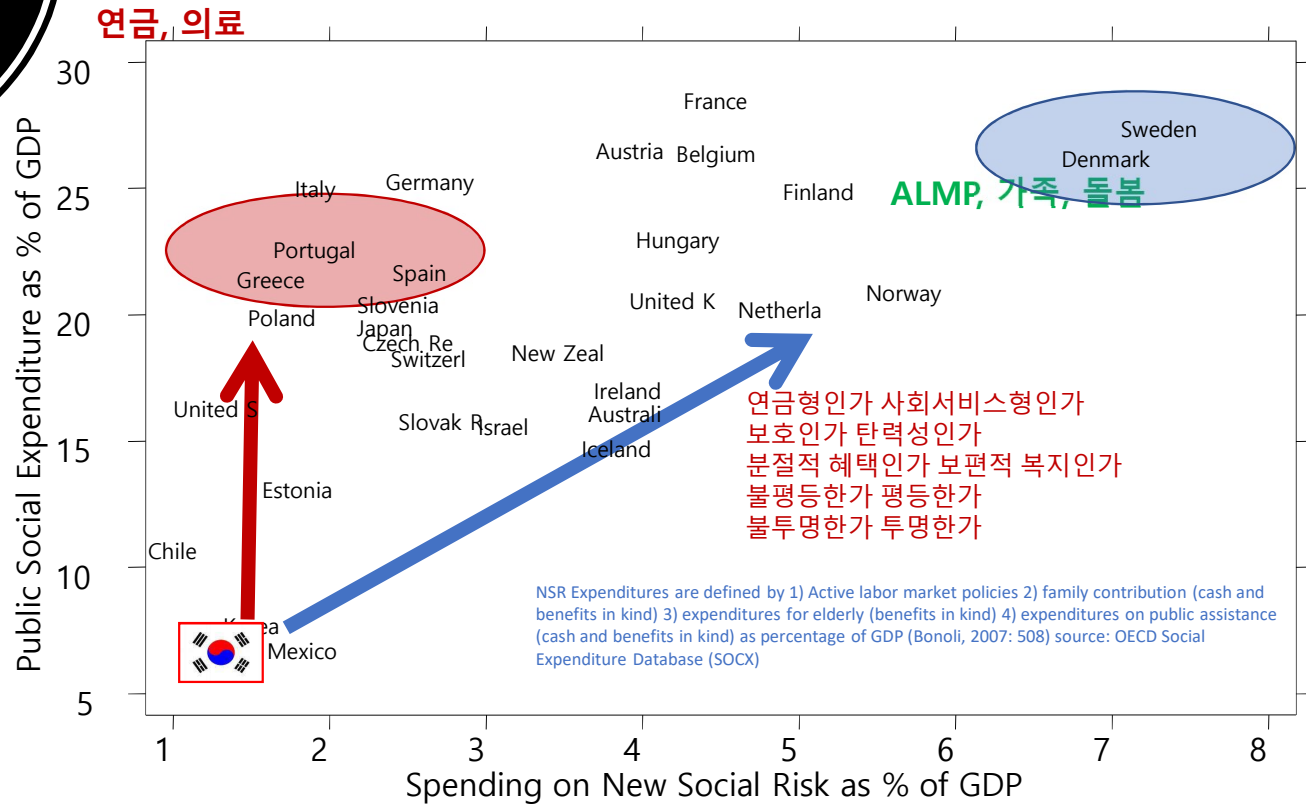


# 투명성과 복지국가유형





총사회지출과  
신사회위험  
관련지출  
(2007)



## 목차

- 왜 신뢰인가
- 신뢰의 사회적 맥락
- 불신의 제도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 사회의 품격
- ✓비영리의 미래

# 가치네트워크 분석

## 플라니의 시장과 사회 구분.

- 시장경제는 사회 및 제도에 배태되어 있다. 세력균형 체제, 국제 금본위제 등과 같은 제도 없이 시장경제는 작동할 수 없다.
- 시장경제는 자신이 배태되어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조정내 내재한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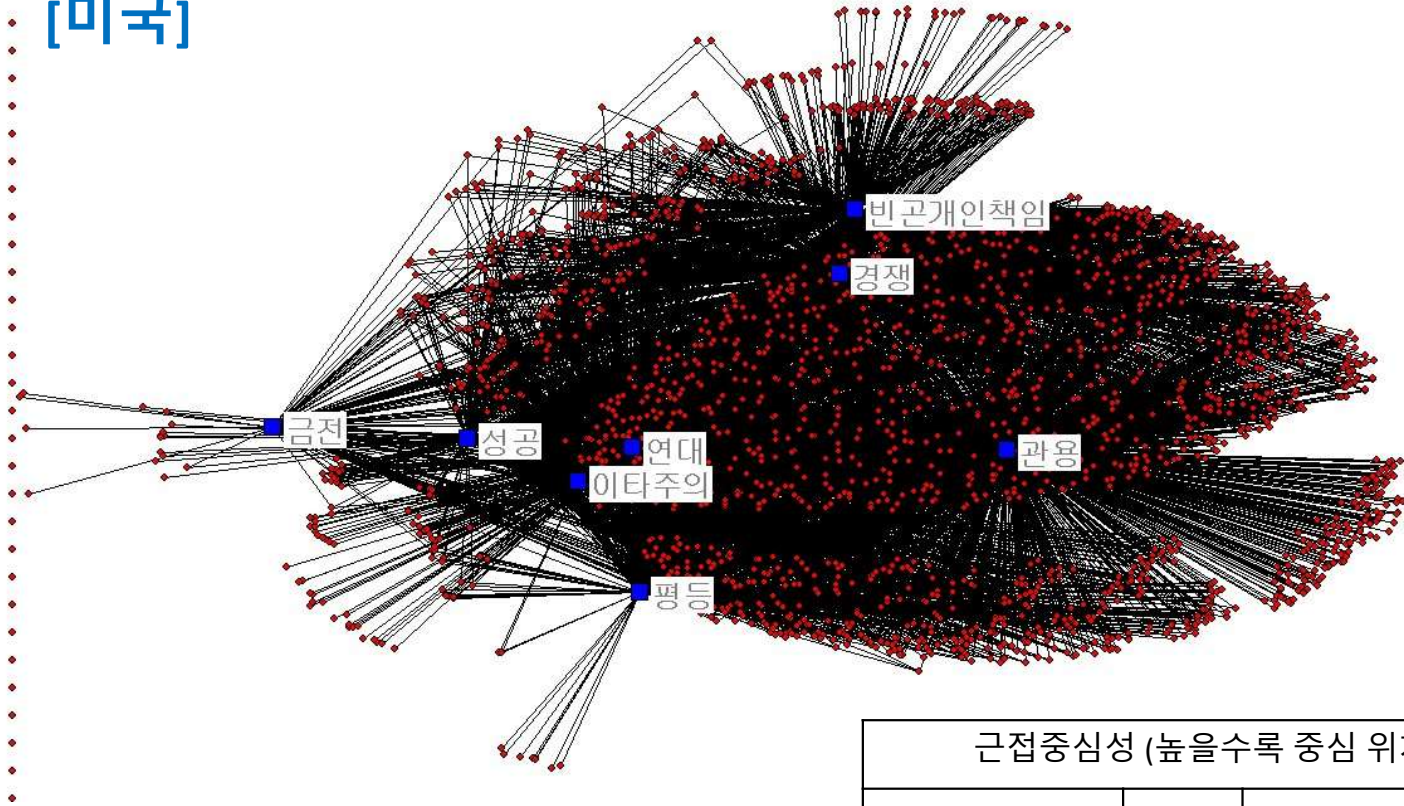
##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

-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은 제도, 가치, 실천 등 여러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분석에서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 사회의 시장지향적 가치와 사회지향적 가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 공공성과 시민성의 기반이 되는 가치 영역에서의 국가비교

- 국가별 가치들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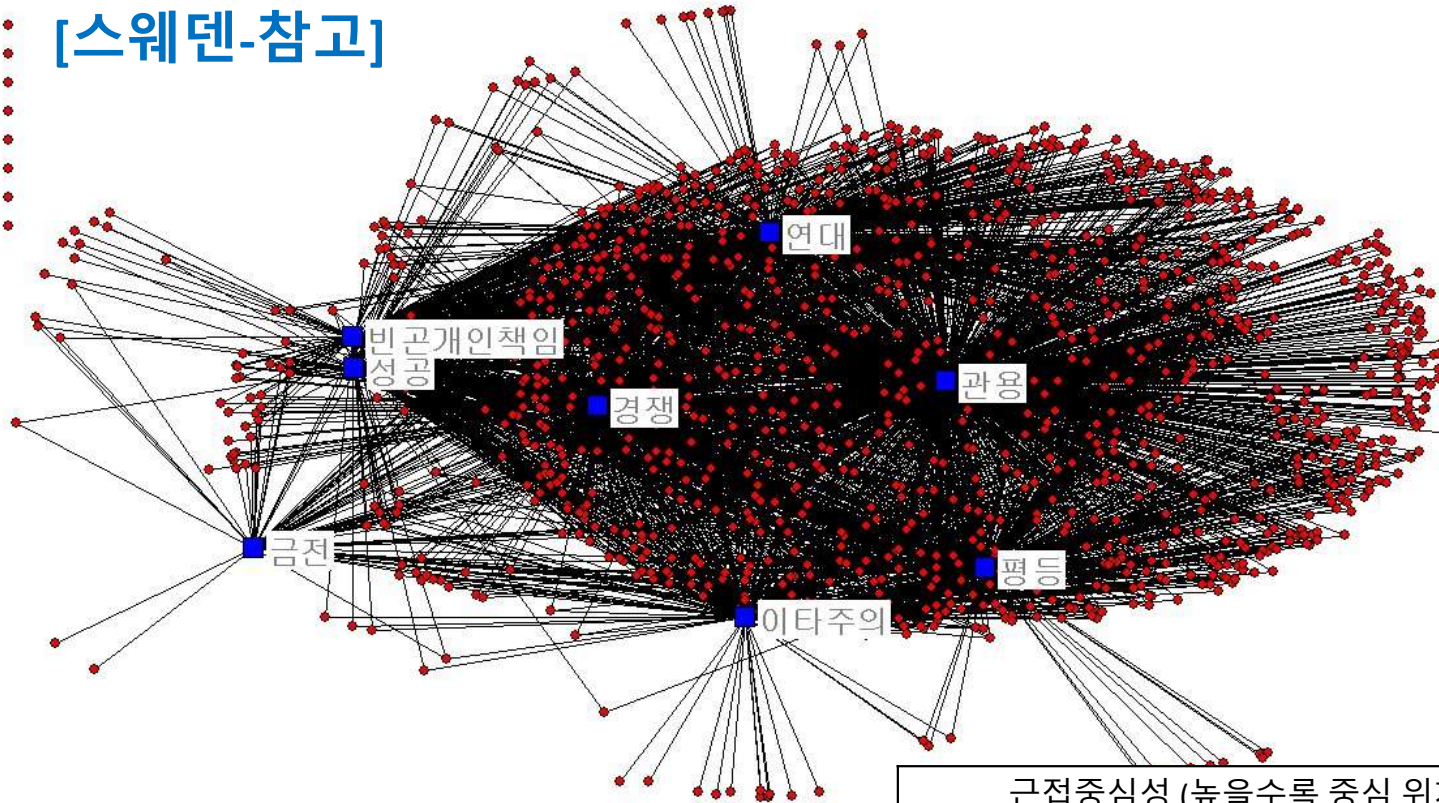
[미국]



근접중심성 (높을수록 중심 위치)			
경쟁	0.759	평등	0.499
연대	0.669	성공	0.489
관용	0.655	이타주의	0.430
비곤개인책임	0.556	금전	0.383

자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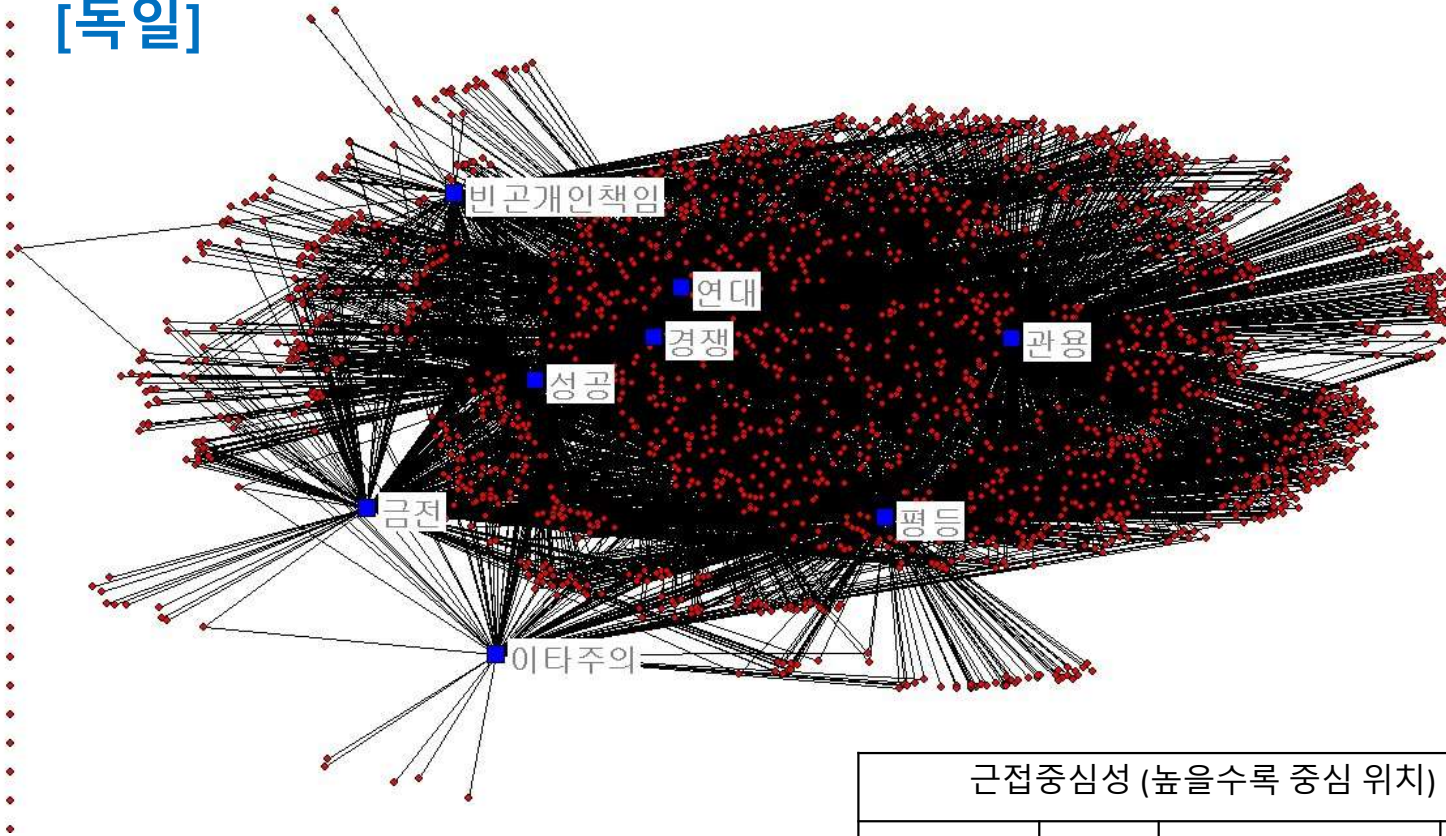
[스웨덴-참고]



근접중심성 (높을수록 중심 위치)			
관용	0.794	빈곤개인책임	0.491
경쟁	0.754	성공	0.475
연대	0.643	이타주의	0.419
평등	0.546	금전	0.388

자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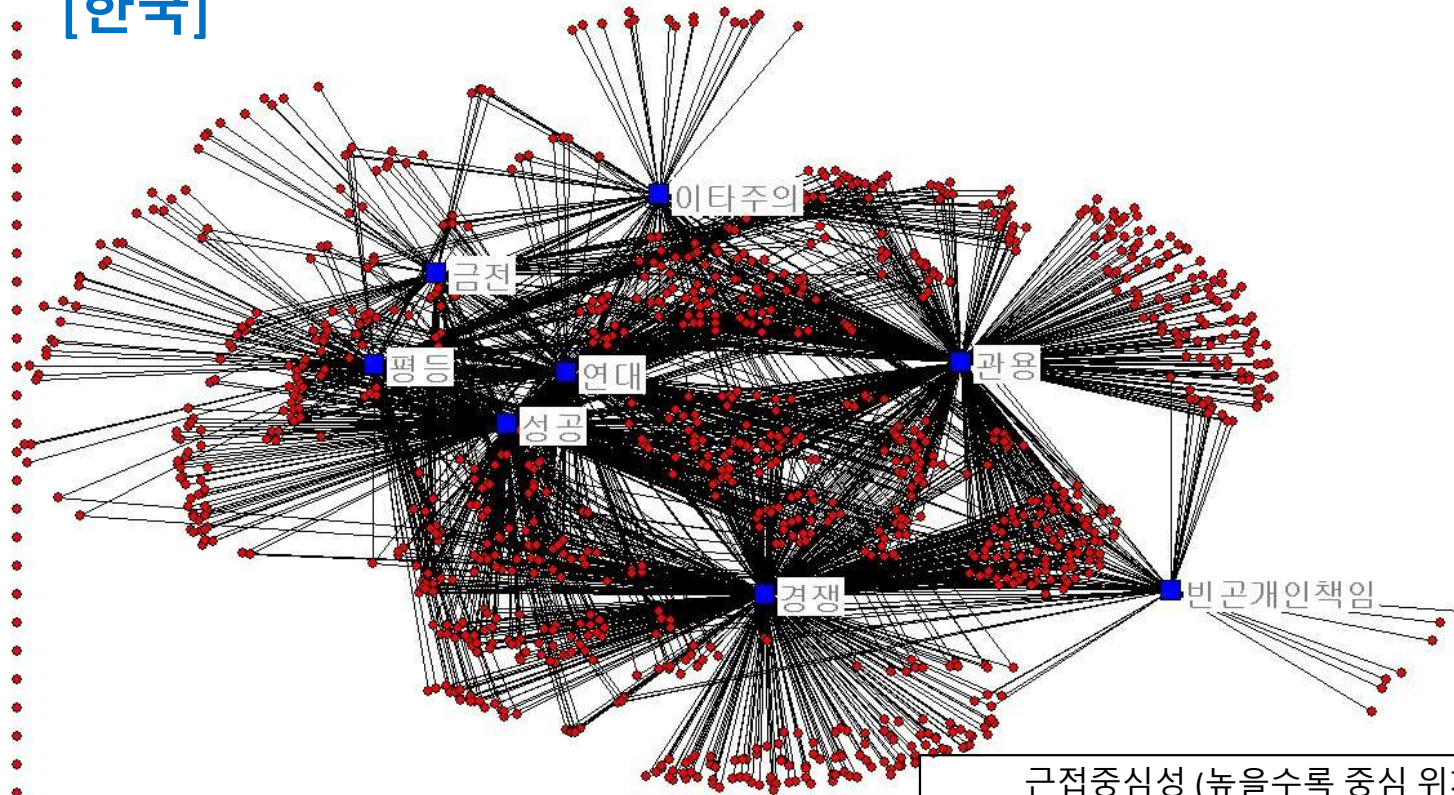
[독일]



근접중심성 (높을수록 중심 위치)			
경쟁	0.734	관용	0.639
평등	0.697	금전	0.438
연대	0.662	빈곤개인책임	0.431
성공	0.639	이타주의	0.350

자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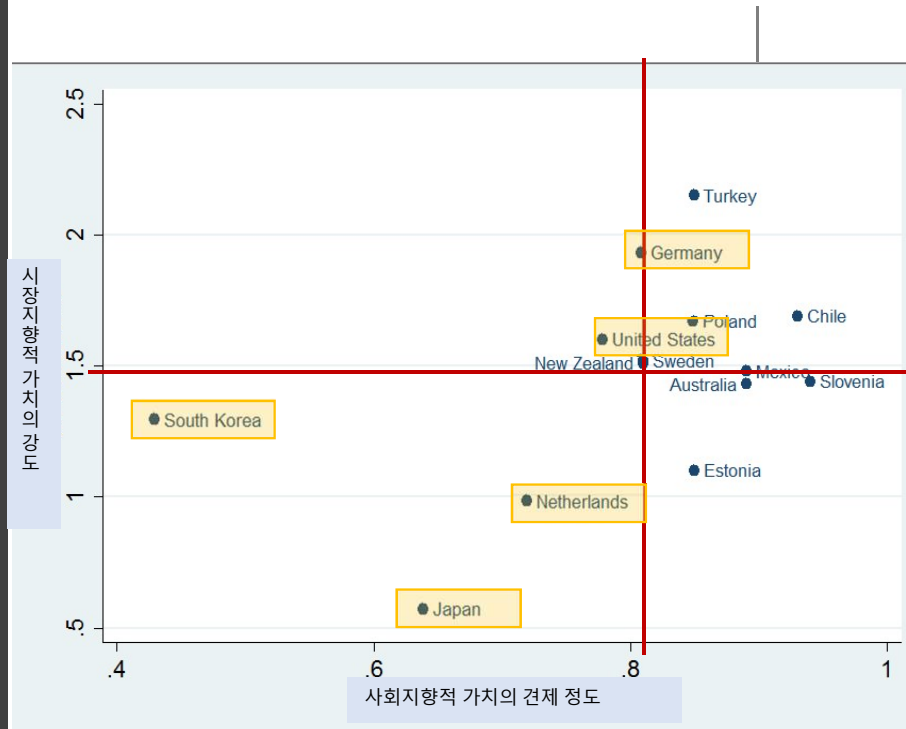
[한국]



근접중심성 (높을수록 중심 위치)			
경쟁	0.735	평등	0.430
성공	0.600	금전	0.408
연대	0.536	빈곤개인책임	0.383
관용	0.485	이타주의	0.369

자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4)

# 가치네트워크 분석결과



- 노드는 경로 거리(geodesic distance)를 기준으로 그려짐. 경로 거리는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최소 단계수를 의미.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 많이 선택될수록, 가치가 중앙에 위치. 또한, 가치들의 근접성은 많은 응답자들이 해당 가치들을 동시에 선택했음을 의미.
-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비해 일본은 시장지향적 가치가, 한국은 사회지향적 가치가 네트워크 바깥으로 밀려나 있음.
- 시장지향적 가치의 강도는 1.29의 값으로 한국이 비교 5개국 중 세 번째임.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
- 그러나 독일이나 미국의 시장지향적 가치는 높은 사회지향적 가치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국에서 사회지향적 가치의 견제 정도는 0.43의 값으로 매우 낮음.

자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4)



## 사회성 여가의 가치 재발견

- **양적 성장** 사회에서 **질적 성숙** 사회로
  -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 = 여가 시간의 절대적 부족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 물질재 (material goods)에서 위치재(positional goods)로
  - 물적/인적 자본에서 사회자본으로
- 사회성 여가의 효용
  - 이타적 여가
  - 여가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여가활동
  - “자유시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이나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취미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어 그것이 스스로의 기쁨이나 사는 보람과 연결되는 것 같은 사회성을 띤 여가”
  - 사회적 유대의 향상 -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 - 건강한 민주주의

# 사회의 질과 행복



사회의 질  
구성요소와  
행복과의 상  
관관계

변수	상관계수 (**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로그국민소득	0.7466**
사회의 질	0.6745**
공적제도역량	0.5034**
- 탄력성	0.5886**
- 복지	0.2845
시민사회역량	0.7642**
- 사회응집성	0.7316**
- 정치역능성	0.7124**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사회의 질 (회귀분석)

	(1)	(2)	(3)	(4)	(5)
GDP(PPP)	1.081***	1.094***	.506	0.654	.702*
공적제도역량		-.0006			
시민사회역량			0.018**		
- 사회응집성				0.012	
- 정치역능성					.014^
상수항	-4.382**	-4.478	.457	-.816	-1.155
Observations	29	29	29	29	29
AdjR-squared	.541	.523	.589	.555	.586

주) ^: .1수준에서, \*: .05 수준에서, \*\*: .01 수준에서, \*\*\*: .001 수준에서 유의미

# 시민의 역량화(empowerment)



개인형 보다는 함께 즐기는 여가를 지원

•예: 미국의 볼링클럽의 역할과 사회적 자본  
연고형 보다는 동호회형 여가를 지원

•예: 일본 고교 동창회의 제2졸업여행과 네팔 학교지원사업

자원봉사 크레딧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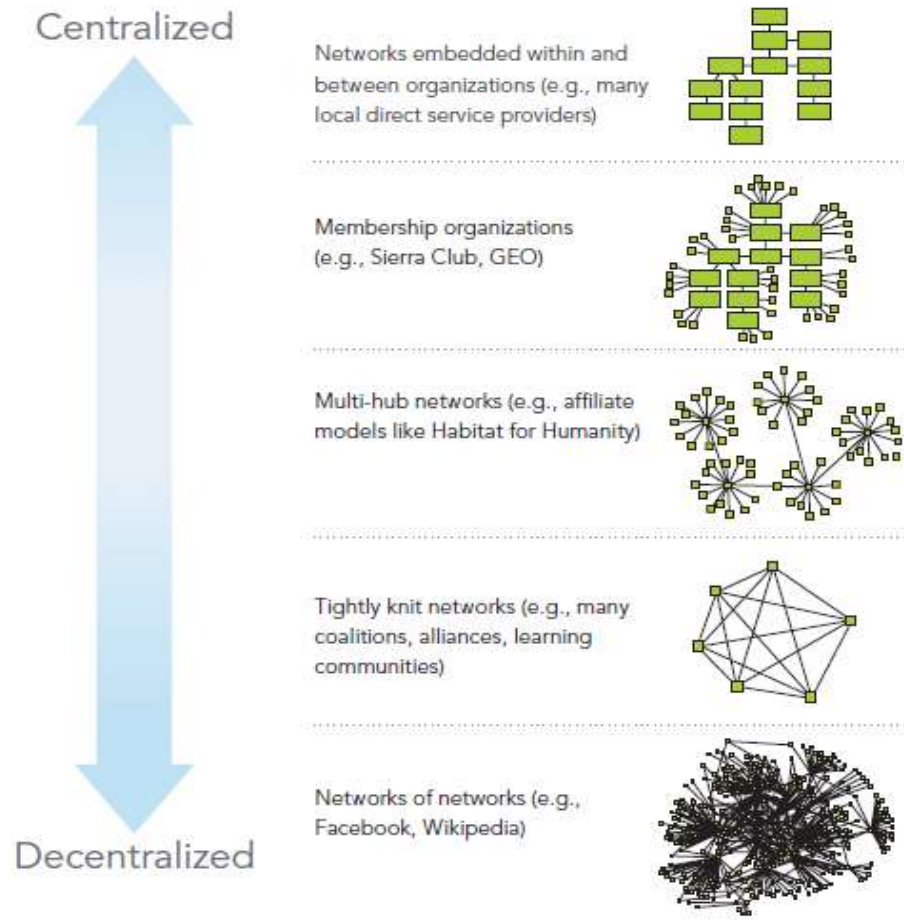
•예: 누적 크레딧에 비례하여 정책예산이나 기부금의 활용처를 결정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자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원을!

•'참여율'과 '참여시간'의 반비례경향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의 프로 보노 (pro bono publico)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년층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절한 자원 지원

# 조직의 변화



"Working Wikily," by Diana Scearce, Gabriel Kasper and Heather McLeod Grant, in the summer 2010 issue of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 조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전통적 조직



새로운 조직

닫힌 체계 (closed system)	열린 체계 (open system)
위계적 (hierarchical)	수평적 (horizontal network)
합리적 체계 (rational system)	자연적 체계 (natural system)
노드 중심 (node)	링크 중심 (link)
패스워드 시스템	키워드 시스템
<b>전통적 위계조직</b>	<b>네트워크</b>
통제와 계획	자유, 출현적 속성
개인 노력 강화	연결과 연계
프로그램 만들기	참여 촉진 위한 플랫폼
정보와 학습독점	정보와 학습의 개방
집중적 의사결정	공동결정
개별 전문가	집합지성
구체적 성과	사회적 영향력

## 초연결과 블록체인

- 새로운 기술적 진보
- 거대 조직을 대체하는 P2P 공유지의 확대
- 비영리 부문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성과



# 전환의 논리

